

월간

다함께

2002년 5월 [12호]

권영길의 노무현 비판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
교사 노동자가 교육개혁을 비판한다
진중권 논쟁
베네수엘라의 쿠데타와 민중 봉기

〈다함께〉는 기업 광고 협찬을 일체 받지 않으며 구독료로 운영·발간됩니다.



의심스러운
줄타기

이탈리아 전역을 뒤덮은 총파업 물결.

좌파들의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었다.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반자본주의 시위에는 50만 명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상당수 조직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시위 전날 밤에 조직자들은 7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일주일 뒤에 이탈리아에서 우파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3백만 명이 로마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CGIL(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이 호소한 이 시위는 전후 이탈리아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4월 16일에는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채택한 정부가 얼마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체제가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느낀다. 그들의 분노가 거리와 공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람들은 그저 임금·일자리·연금 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군국주의·외채·제국주의·억압·팔레스타인인 지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상대적 소수파이지만 거대한 대중이 체제의 특정 측면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체제 일반에 대한 도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 대한 폭격 계획에 반대한다.

한때 서유럽의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저항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이 정당들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고 여긴다.(그들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을 강력하게 비판한 뤼프 우브리에르(노동자투쟁당-혁명적인 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아를레트 라기에르가 10퍼센트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바르셀로나와 로마 같은 규모의 시위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철도·발전·가스 부문에서 중요한 파업이 벌어졌다. 이 파업들 가운데 일부는 잠정적 승리로 끝났고, 다른 일부는 패배했다. 앞으로 더 많은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은 투쟁을 일정 수준까지만 한계짓고 싶어한다.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기회주의(대중의 후진적 부분에 영합하기)는 우리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계급 세력 저울을 보여 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문화일보>와 YTN이 TNS에 의뢰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1.7퍼센트가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7.5퍼센트에 그쳤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염증을 느껴 왼쪽으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이것이 노무현이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노무현은 약속빠르게도 급진화 물결에 올라탔다. 그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노무현 같은 자유주의적 포퓰리스트가 담아 내기에 지금의 급진화는 거대하고 빠르게 흐르고 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말 등에 올라탄 로데오 선수처럼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노무현은 벌써부터 오락가락과 애매모호함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더 큰 진정한 좌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세계 자본에 대한 세계적인 저항이 만들어 내고 있는 기회다. 우리 좌파들은 각자의 고유한 활동과 별개로 공동의 활동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 반전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반자본주의 투쟁, 선거 등.

지금 우리 나라의 운동은 너무도 파편화돼 있다. 똑같은 ‘여성의 날’ 집회도 세 군데에서 열리고, 파업도 각개약진식이고, 메이데이 전야제도 그런 식이었다. 효과적인 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노래와 춤이 절대적인 주종목을 이루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말이다.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의 다양성’이 아쉽다. 우리는 호소한다. 다함께 행동하고 따로따로 선전하자! 또는 따로따로 선전하고 다함께 행동하자!

목차

4 저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

특집1

- 6 노무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 9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 12 박근혜 지지가 진보인가?
- 13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 14 유엔개발재원국체회의

특집2

- 15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
- 18 [마르크스주의를 배웁시다] 제국주의
- 20 발전 파업의 교훈
- 22 공교육 내실화 방안 비판
- 24 진중권 비판

- 26 에이즈
- 28 전쟁과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

격동의 세계

- 31 베네수엘라
- 34 이탈리아 총파업
- 36 중국 노동자 투쟁
- 38 프랑스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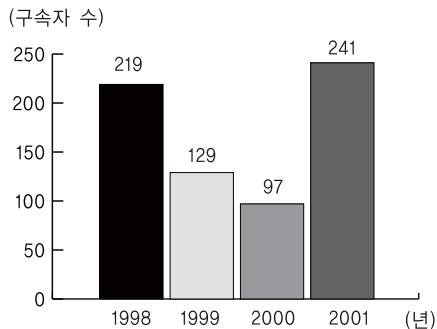
- 39 [문화 비평] 할리우드 전투
- 40 영화평/서평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5-4773 / Fax : 02-968-5907
E-mail : altog@her2002@ycos.co.kr
http://altog@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6월 13일입니다.
E-mail : altog@her@orgi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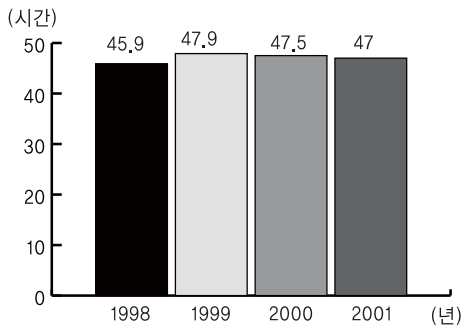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김대중 정부 5년

불만은 쌓이고 저항은 확대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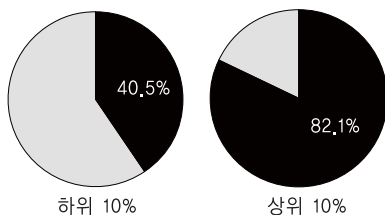
구속 노동자 수

- 김대중 정부 4년 3개월 동안 719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일주일에 세 명꼴이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 늘어난 노동시간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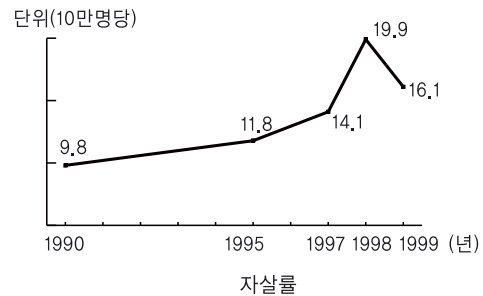


하위 10%

상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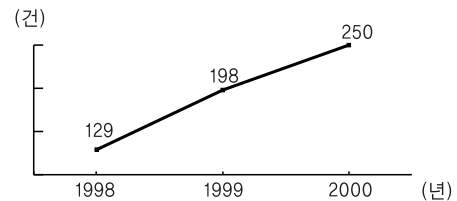
주택 소유 비율

- 결혼 후 내 집 마련하는 데 10년 9개월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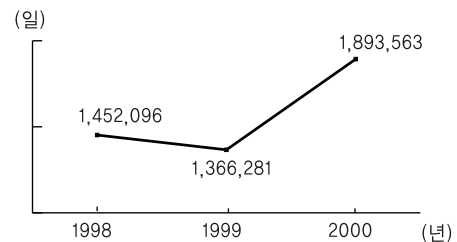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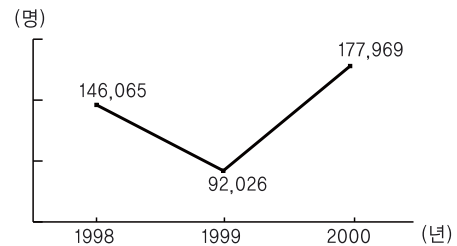
- 빈부격차의 심화가 사람들을 절망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파업 건수



파업 손실 일수



참가 인원

- 갈수록 불만이 쌓이고 저항이 확대됐다.

월드컵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을 빌미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집시법을 더욱 개악하려 한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의도적 공권력 무시 행위’에는 심지어 침 뱉기도 포함된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 천막을 설치해 장기 농성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껏 공격할 명분을 얻은 셈이다.

국가보안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청학련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김혜신 사무국장, 후원회 김영호 사무국장, 도영경·임인섭 후원회원이 연행되었다. 3월 18일 14기 서총련 의장 김주훈 씨가 연행되었다. 3월 8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 제정된 ‘2002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법’에 의해 월드컵 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국정원장이 이 기구의 위원장이다.

정부는 월드컵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든 ‘테러’로 취급하려 한다. ‘테러리스트 색출’은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좋은 명분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한 민주적 권리 위협의 최종판은 테러방지법 제정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사회 단체들의 저항으로 국회 논의

가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을 핑계로 슬그머니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더욱 제한하려 한다.

거리의 노점상들은 벌써 월드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핑계로 밀어붙이는 단속은 하루 벌여 하루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노점상 서용운 씨는 심해지는 단속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 때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입국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월드컵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다국적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애쓴 노동자·민중이 희생돼야 하는가.

조박은정

독재자 추모

최근 <한겨레> 신문은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1월 29일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몰래 착공한 사실을 폭로했다. 기념사업회는 “박정희 개인의 기념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와 관련한 자료를 전시하는 공공 도서관을 짓는 것”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기념관 설계도에는 자료 열람실 등 도서관 기능 시설이 없다. 또한 건축물의 명칭은 기념사업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기공식도 기념관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 직원들만으로 몰래 치렀다.

기념사업회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기념관 건립 반대 여론이 두려워, 구령이 담 넘어가듯 기념관 착공을 추진한 것이다.

김대중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정희를 추모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기념사업회의 명예 회장이기도 한 김대중은 총 7백억 원이 들어가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2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했다. 또, 추가로 필요한 5백억 원을 모으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사업회의 모금을 허락했다. 서울시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상암동 빈민촌을 강제 철거했다. 그래서 6백50평의 시 부지를 기념사업회에 무상 제공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에게 모진 고문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민주 투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에는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추악한 독재자 박정희를 추모하는 데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고 있다.

김유정

노무현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병호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급진 세력이 좌파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을 공격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홍세화 씨는 김대중이 “만델라인 줄 알았더니 대치더라...철도·가스·발전 등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대치 이상으로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우파들이 현 정부를 “좌파적”이라고 억지부리는 것은 다른 꾀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 개혁을 열망하고 공공연히 “시장 경제 원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파들의 색깔 공세는 2월 말부터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도전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무현을 통해 드러나는 거대한 민주 개혁 열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회창은 주도면밀하게 현 정권의 정책이 “안정을 회구하는 국민 뜻”에 배치되는 “좌파적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민주 개혁에 대한 자신의 본능적 거부감을 “안정”이라는 말로 치장한다. 마치 국민의 다수가 “보수”를 지향하는 양 말이다.

그러나 <문화일보>와 YTN의 4월 정기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7퍼센트가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다.”

좌에서 우로

이렇듯 우파들의 낡은 주장은 점점 대중적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에, 실업·가난·빈부격차 등을 낳는 시장주의 정책도 거대한 불만을 낳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도 김대중도 아닌 대안적 정치인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바로 이런 열망이 노무현 ‘돌풍’을 낳았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김대중을 뛰어넘는 개혁 정치인의 면모를 노무현한테서 발견하는 듯하다.

노무현은 1980년대에는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노무현은 1981년 무림사건을 계기로 재야 운동에 투신했

좌에서 우로 : 1989년 6월 대우 조선 노동자들 앞에서 투쟁 지지 연설을 하는 노무현

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체제 전복적 운동”이라고 매도할 때, 198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히려 재벌과 군부야말로 “[노동자들의] 가슴에 분노와 증오가 응어리지게 하는” “민주체제의 파괴를 재촉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또,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금지한 “악법은 따르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은 1987년 노동자 대항쟁을 경험하면서 노동자 투쟁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노동자 투쟁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점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깨뜨리고, 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그날”을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9년 7월 6일 현대중공업 신임노조 출범식 연설에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노무현은 후진국이 가난한 이유가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수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한 미군 철수를 지지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오

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 혁신 또는 진보 노선은 인기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말》 1993년 5월호) 하고 말했다.

그리고 “1991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된 후 김대중 총재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는 재야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외교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 조율을 하게 됐다.”

노무현의 우경화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노무현은 1999년 삼성자동차와 2001년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을 지고 매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노동자들에게 달걀 세례를 받기도 했다.

또,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그의 중재로 해고된 식당 아주머니들이 노무현의 선거 사무소에 찾아와 시위한 것을 두고 “어디까지나 작은 소란”이라고 무시했다.

딜레마

노무현은 민주 개혁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지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김대중과 민주당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노무현의 딜레마다. 이 때문에 최근 그의 말과 행동은 좌충우돌과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 사유화 문제에 대해 그는 처음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이인제가 “김대중 대통령은 철도, 가스공사 등의 민

그러나 2001년 대우차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 수용을 종용하다 달걀 세례를 받고 있다.

영화를 강력히 추진중인데 노 후보는 반대했다”고 공격하자, 노무현은 “민영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발전소 사유화에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발전·가스·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 분야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노무현의 딜레마를 보여 주는 결정적인 사례는 김대중의 세 아들에 대한 특검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태도다.

그는 정권의 총체적 부패에 대한 대중적 증오를 염두에 두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한시적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김대중의 세 아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노무현은 색깔 시비에 대해 자신이 “민주당의 색깔이고 김 대통령의 색깔”이며 김대중의 노선과 이름을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무현은 우파들의 색깔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우파들에 타협한다. 그는 종종 대중의 열망을 거슬러 기업에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부자가 존경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사장들의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파괴하는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고, 대표적 반환 경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통령이 되면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시장 경제 신봉자”라고 자처하는 노무현에 대해 대기업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기업주들의 대변인 경총 부회장 조남홍은 노무현을 “Charming Politician(매력적인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기업인들은 노무현이 “제도권에 들어가면 바뀐다”는 생각을 갖

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그는 점점 더 기업주들의 입맛에 맞는 태도를 자주 보여 줄 것이다. 그럴수록 노무현은 시장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무시해야만 한다.

노무현은 기업주들의 돈과 로비로 운영되는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시장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을 믿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은 십여 년 전에 오늘날 노동자들이 새겨 들은 만한 ‘명언’을 남겼다.

“[저는] 판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 보았습니다. 일단 높은 사람이 되고 보니, 꺾발 좋은 자리에 가 놓고 보니 돈 없고 뺨 없는 사람들 사정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사람이 찾아 와도 주로 사장이나 이사가, 아니면 적어도 목에 힘깨나 주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밤낮 듣는다는 소리가 ‘오즈음 노동자들 많이 달라졌다...임금이 높아서 수출이 안 된다. 정말 걱정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없는 사람들이 믿을 것은 자기들뿐입니다.” (1988년 12월 26일 현대중공업 연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여러분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세우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도록 해야 합니다.” (1989년 7월 6일 현대중공업 연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일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노무현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편집자 주] 노무현의 급부상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다. 노무현이 노동자에게 모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애초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명계남 회장과도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김덕엽 정리

이제 김대중 정권은 최소한의 지지기반만이 남아있는 사실상 허공에 떠 있는 정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간에 나도는 ‘노풍’의 진원지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자면 20~40대 초반에서 노풍이 불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 부대였던 ‘벡타이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IMF 이후 모든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억눌려 왔습니다. 사무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눈에 띄지 않게

억눌려 왔습니다. 억눌려 온 사람들이 폭발한 결과가 바로 노무현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이것을 왜 받아 안지 못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힘이 그것을 안을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장래의 대안 세력이지만 현재 민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20~40대 초반의 사무·금융직 중심의 계층에서 부는 노풍은 길게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노풍을 곤혹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길을 열어 주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돼 2년쯤 지나고 나면 그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기대야 할까?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우리 나라 진보 정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노무현을 ‘급진좌파’로 몰고 있습니다. 이언제는 노무현이 민주노동당 후보에나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이 좌파라고 보십니까?

이회창 씨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말하는 ‘좌파’는 우리가 말하는 좌파와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냉전 논리에 몰입해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방·공격할 때 쓰는 용어가 ‘좌파’입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은 좌파가 아닙니다. 노무현 씨를 다른 민주당 후보와 견주어 볼 때 개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노무현 씨만을 놓고 개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의 개혁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개혁은 민중의 처지에서 볼 때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을 좌파로 몰아세우지만 이들은 진보도 좌파도 아닙니다.”

반개혁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바탕 위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추진합니다. IMF가 요구한 대로요. 일방적인 금융 개방,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 매각, 알짜 대기업의 해외 매각,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량 해고, 이게 바로 민주당의 개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반개혁이죠.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을 좌파로 몰아세우지만 이들은 진보도 좌파도 아닙니다.

노무현의 부상은 민주노동당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일부 겹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과 어떻게 차별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겹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씨가 노동자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세계화, 뉴욕 월가에 자리 잡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가들이 전파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누구니까? 김대중 정권이고, 정당으로 보자면 집권당인 민주당입니다. 노무현 씨는 뭐라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더욱이 노무현 씨는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 IMF 요구 사항을 무비판적으로 흔쾌히, 과도하게 수용한 당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자신이 시장경제 지상주의자입니다. 시장경제 지상주의자들과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어떻게 겹칠 수 있었습니까?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 출신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찰머스 존슨은 두 달 전쯤 <LA 타임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의 꼭두각시인 IMF의 요구사항인 신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으면 제2의 외환 위기에 직면한다.” 노무현 씨에 대한 지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성철과 연대 : 사회포럼 2002 에 참가한 단체들은 단체

로서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일각에서는 “비판적 지지”가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한 번쯤 노무현 바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노동자들 가운데 노풍에 현혹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지지는 1997년 김대중 씨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다릅니다. 그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한 비판적 지지였어요. 군사 독재 정권이나 그 유산을 이어받은 세력, 수구 보수 세력에 반대해 보수 정당이지만 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죠. 그 때 개혁은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무현 씨에 대한 신(新)비판적 지지는 그때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보수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보다 좀더 낮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돼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힘이 없다 해도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가꾸고 키워 나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모아졌을 때 민주노동당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권 대표께서는 2001년 창당 1주년 기념 대의원대회 이후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2001년 3월 26일치)에서 “민중의 생활 안정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여야소장파 개혁세력과 연대할 방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2기 민주노동당 대표 당선 이후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소위 “개혁파” 노무현과 연대할 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얘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행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 이자제한법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개혁적 성격을 갖는 세력들, 이런 법에 완전한 동의는 아니지만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고무해 우리가 내건 법을 입법하기 위해서요. 올해 제가 말한 뜻은 선거 행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과 연대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신자유주의를 선호하고 다른 한쪽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연대하

겠습니까. 권영길 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소위 “개혁”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권영길의 생명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 세력과 연대하라는 말은 제 생명을 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표께서는 당 대표 경선에서 노동자 기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에는 여전히 노동자 중심성보다는 다양한 사회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포퓰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되게 공력 견인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력 대상의 문제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뭘 얻어야 하는냐는 물음으로 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얼마나 얻을지에 대해 말한 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중심 부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을 중심 부대로 세워 내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투표하는, 즉 계급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우리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넓게 형성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중심 부대가 되면 민주노동당의 대선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민주노동당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중심 부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겠습니까? 양대 노총이 노동법 개악 없는 주5일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철도·가스·발전의 사유화 반대 투쟁이 있었죠. 그럼 보세요. 국가 기간 산업 사유화를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노동법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위해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시장경제 지상주의자들인 보수 정치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에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가 아닙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시의원·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당선되지 못해도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표를 얻었느냐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1백만 표를 받으면 1백만 표의 씨앗이 될 것이고, 2백만 표를 받으면 그만큼 세상을 앞당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요즘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앞두고 뤼프 우브리에르 노동자 투쟁당(LO)의 아를레트 라기에르 후보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라기에르는 사회당 후보 리오넬 조스팽을 우파인 지크 시리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해 조스팽의 표밭인 좌파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기에르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조스팽을 찍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조스팽은 라기에르의 압력을 받아 좌선화한 공약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뤼프 우브리에르의 선거 전략을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7년 동안 파리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부터 아를레트 라기에르는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부터 출마했습니다. 계속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어떤 땐 표를 1퍼센트 정도 얻기도 했죠. 뤼프 우브리에르, 노동자 투쟁당은 계속 후보를 냈고 매번 라기에르가 출마했죠. 우리 나라 같으면 라기에르를 보고 대통령 병에 걸렸다고 하겠죠. 그러나 라기에르가 왜 계속 출마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끊임없이 알려 나가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금은 라기에르가 조스팽을 맹공격하지만 1980년대에는 프랑스 공산당이 사회당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2차 결선 투표에 가면 유권자들은 좌파는 좌파에게 우파는 우파에게 표를 던집니다. 1차 투표에서는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라기에르도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진정한 통일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보수 수구 세력이 노무현 씨더러 좌파나 진보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민주노동당이 대선 후보를 내, 진짜 진보주의자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참여하면 노무현 씨는 진보주의자나 좌파로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중심 부대로 세워 내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투표하는, 즉 계급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지지가 진보인가?

정진희

[편집자 주] 이 글은 본지 기자 정진희가 시민 단체 공동 신문 〈시민의 신문〉 436호에 기고한 글이다.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싣는다. 재게재를 용인한 〈시민의 신문〉측에 감사드린다.

지난 달 월간 《프리미어》 편집장 최보은 씨가 《말》 3월 호에서 사실상 박근혜 지지를 표명했다. 김해 여성복지회관장 장정임 씨가 최보은 씨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최보은 씨와 장정임 씨는 여성은 여성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진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박근혜가 여성이라 해서 진보적이라고 볼 구석은 조금도 없다. 박근혜는 여성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박근혜 지지에 반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박근혜가 그 동안 여성 정책에서 어떤 진보성을 보여 왔던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정임 씨는 박근혜 지지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박근혜를 ‘박정희의 딸’로서만 인식하고 폄하하는 주류 남성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것은 쟁점 흐리기일 뿐이다. 박근혜가 기성 정치권에 뛰어들어 지 4년여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한 게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최보은 씨와 장정임 씨는 박근혜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박근혜는 한 번도 아버지 박정희와 자신을 차별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자신이 아버지의 후광을 업으려 노력해 왔다. 1999년 3월 19일 한나라당 인천시 연수지구당 초청강연회에서 박근혜가 ‘박정희의 소신’을 강조(〈부산일보〉 1999년 3월 20일 12 • 2002년 5월호

자)한 것은 단지 한 예일뿐이다.

박근혜가 문제 되는 것은 단지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박근혜의 정치 기반이 지독한 냉전 우익 세력들이고 그 자신이 지독한 우익이라는 점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모델이 1980년대 영국의 강경 보수 우익 마거릿 대처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대처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는 총리에서 물러난 지 8년이나 지난 1998년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1위에 올랐을 정도다. 1984~85년 광부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것으로 유명한 대처는 결국 1990년의 주민세 반대 항쟁으로 물러나야 했다. 1998년에 대처는 25년 전 칠레에서 쿠데타로 수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체포됐을 때 구명 운동을 벌여 풀려나게 만들기도 했다. 박근혜는 바로 이런 자를 4월 초 영국 방문 때 만나려고 애썼다.(이 만남은 대처쪽 사정으로 무산됐다.)

물론 박근혜가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이 오로지 아버지의 후광 때문만은 아니다. 그 자신의 보수성이 없었던들 냉전 수구 세력의 아성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부총재라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 박근혜가 “햇볕 정책”을 “폐주기”라며 공격한 대북 강경파라는 사실(임동원 통일부 장관 사퇴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시장 경제의 지지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아마 최보은 씨와 장정임 씨가 이 점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지위가 신장될 것이라는 환상과 정치적 혼란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장정임 씨는 “현실”을 강조하며 “줄창 원론만 지껄이”는 진보 진영을 비판했다.

그러나 도대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장정임 씨는 “여성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각료 임명장을 주는 모습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화면을 뒤덮는 날,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며, 이제 여성의 당대 논리는 진보정당이 아닌 여성당”이라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대처가 수상으로 있던 11년(1979~1990년) 동안 여성에게 무엇이 개선됐는가. 이 시기 영국 여성의 권리는 향상되기는커녕 도리어 퇴보했다. 이전 시기에 여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복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자가 대처였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가 진보성의 기준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동안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학살해 온 미국과 영국의 여성 강경 매복은 무엇이란 말인가.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영국의 국제개발장관 클레어 쇼트가 여성이라 해서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평범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경 우익인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은 자멸적인 일이다.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김은영

김대중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신고 기간(3월 25일~5월 25일)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1년 뒤 추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 33만 명 가운데 26만여 명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다.

정부는 월드컵을 이주 노동자들의 억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인데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집회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연설도 막았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위해 단속 인원을 대폭 충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쫓겨난 노동자들은 5년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입국 규제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 출신의 국민들은 한층 강화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범죄를 일으킨다”며 이주 노동자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대다수 이주 노동자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범죄자 취급에 대해 한 이주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빈곤과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우리를 ‘불법’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동

포들은 몇 차례 촛불 향의 시위를 벌였다. 4백여 명의 조선족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한 조선족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 잦아 돈을 벌기는 커녕 빚 갚는 것도 최소한 1년 반은 걸립니다. 이런 우리 더러 1년 내로 돌아가라고 하니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은 적어도 5년은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동포는 환영하면서 조선족은 내쫓으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정부는 조선족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취업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허가제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연간 20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연수취업제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 연수취업제는 합법적인 연수생 신분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통로다. 연수생들의 끔찍한 노동 조건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때문이다.

연수생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20~3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아 왔다. 이탈을 방지한다며 임금의 일부인 15만 원 가량을 은행에 강제 적립했다. ‘현대판 노예 제도’인 연수취업제는 폐지돼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과 연수취업제 유지 정책에 맞서 계속 항의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4월 11일 정부의 이주 노동자 단속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는 조선족 노동자들 사진 이정하

UN개발재원국제회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한상원

지난 3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유엔개발재원국제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에 이르는 10억 명의 빈곤층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로 열린 이 회의에 50개국 정상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해 위선적인 말을 요란하게 늘어놓은 것뿐이었다.

선진국들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0.7퍼센트를 빈국에 원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몬테레이 선언'이 발표됐다. 회의에 참가한 조지 W 부시는 "2004년부터 3년 간 개발재원을 연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제적인 투기꾼 조지 소로스조차 "너무 작은 규모"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고작 국내총생산의 0.1퍼센트만을 빈국에 원조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외채를 경감하고 빈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회원국들에게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빈곤 퇴치를 내세우면서 초국적 자본이 투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몬테레이 선언'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등 외부 민간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 세계 빈부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빈곤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계적 비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빈곤을 강요하고 있다. 1998년에 세계빈곤감시(Global Poverty Monitoring)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동구권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붕괴하고 신자유주의가 동유럽을 강타하면서 이 지역에서 빈곤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2000년 3월 14일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 <빈자의 목소리>에 따르면, 세계 인구 60억 명 중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8억 명,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3억 명이었다. 세계 인구 중 56퍼센트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세계에서 하루에 20억 달러(2천6백억 원) 이상이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다(<월드워치 2002 보고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의 국방비 지출액은 8천억 달러에 육박했다!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6억 명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다.

사람들의 필요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식량 지원보다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자본주의 체제가 빈곤의 진정한 원인이다.

몬테레이에 몰려든 각국 정상들은 빈곤 문제 해결에 관심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빈부 격차에 대해 제대로 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이 몬테레이 회의장 밖에서 남미의 노동자·농민들이 빈곤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이유다.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빈곤을 끝장낼 수 있는 희망이다. 

정의를 위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

[편집자 주] 2000년 9월 인티파다(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 봉기)가 시작된 이래 1천2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당했다. 작년 9월 11일 이후 이스라엘은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 인티파다를 끔찍하게 진압하고 있다. 4월에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의 예니에서 5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원과 해결책을 외국의 진보 저널을 통해 살펴 본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누구인가?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천 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될 때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요르단강 서안 지방과 가자 지구, 다른 아랍 나라들로 도망갔다. 그 때 이래 그들은 난민이 됐다.

팔레스타인 인구 8백만 명 가운데 5백만 명이 난민이다.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1백만 명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난민이다. 요르단강 서안 지방에 거주하는 약 1백60만 명 가운데 65만 명이 난민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왜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하는가?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고향에서 인종 청소당했다. 1947년에 미국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약소국들을 협박해 당시 인구의 30퍼센트에 불과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영토의 55퍼센트를 할당하는 분할안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그조차도 만족하지 않았다.

1948년 4월에 이스라엘 군대는 테이르 야신에서 거의 3백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했다. 1개월 뒤

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됐다.

흔히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랍 지도자들과 뒷거래를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77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 지방을 손에 넣었으며 이집트는 가자를 차지했다. 그 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방과 가자를 침공해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물도 도둑질했다. 요르단강 서안 지방과 가자 지구의 물 75퍼센트를 이스라엘이 가져간다. 이스라엘 사람 1인당 물 소비량이 팔레스타인인 4명과 맞먹는다. 점령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은 40만 명이다. 그들이 사는 정착촌은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를 받는 요새나 다름없다. 이스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계속 봉쇄하면서 식량이나 다른 필수품의 공급을 차단한다.

이런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 2000년 9월 이래 이스라엘의 봉쇄로 죽은 사람만 60명이다.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빈곤과 절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 평화협상의 좌절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오늘로 평화 협상은 1993년에 시작됐다. 그 협상이 중동 평화의 진정한 기회라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 협상은 1987년 첫번째 인티파다의 여파로 시작됐다. 2000년에 평화 협상이 좌절되고 새로운 인티파다가 시작된 이래 1천2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당했다. 이 수치는 이스라엘인 사망자 수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가 “최상의 협상 조건”을 거부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평화 협상은 속임수였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끝내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늘로 협정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지방의 17퍼센트와 가자 지구의 60퍼센트만 갖게 돼 있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거의 권한이 없게 될 터였다. 게다가 여러 지역으로 쪼개지게 돼 있었다. 이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통행로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통제하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정착촌들은 고스란히 남을 것이고, 5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 이스라엘 안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2000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 지방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늘어났다. 왜냐하면 두 군데의 광활한 사막 지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몫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평화 협정 아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은 계속 나

빠졌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아리엘 샤론은 2000년 9월에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해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샤론은 1982년에 레바논의 사브라와 샤틀라 난민촌에서 2천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학살한 사건에 책임이 있다. 그가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한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모욕을 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으며, 새로운 인티파다가 시작됐다.

아라파트는 누구인가?

야세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지도자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에 용감하게 도전한 것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러나 지금 그는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한다.

그는 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 하는가?

우선, 아라파트는 더 이상 게릴라 투쟁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1993년 이스라엘 지배자들과의 협상 산물인 오늘로 평화 협정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이다.

둘째, 우리는 그가 일관되게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라파트는 주변 아랍국 지배자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싸우도록 로비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대미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랍 노동계급의 요구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 요구가 결합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필요하다. PLO는 이러한 전략을 거부하고 협상을 추구한다.

분쟁의 근원인 원초적 불합리(가난·질병·주거 등)가 남아 있는 한 팔레스타인에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인티파다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반란일 뿐 아니라 아라파트에 대한 반란이기도 하다.

시온주의는 인종 차별주의인가?

시온주의는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정치 운동이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동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 혐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었다.



그 사상은 유대인 주민의 일부를 반유대주의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을 뜻했다.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유럽의 억압받던 존재에서 중동의 억압자로 변신했다.

이스라엘 인구의 5분의 1인 1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국경선 안에 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국가”를 추구한다.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 뒤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기들의 토지 85퍼센트를 빼앗겼다. 이스라엘 국가가 아랍인 1인당 지출하는 교육비는 유대인 1인당 지출의 절반밖에 안 된다.

유대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아랍인보다 33퍼센트 나더 많다. 1940년대 이래로 이스라엘 내에 건설된 아랍인 도시는 단 하나도 없다. 아랍인이 주택 건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건수가 2000년에만 약 2만 2천 건이나 됐다. 물이나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마을들도 많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시온주의자들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한다. 1980년대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메나헴 베긴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두 발 달린 동물들”로 묘사했다.

전 세계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책들을 혐오한다.

귀환권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귀환법은 세계 어느 곳의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5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가운데 88퍼센트는 자기 고향 근처의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스라엘 국경선 안에는 이 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다. 난민들의 90퍼센트 이상이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 차별주의적 성격이 위협받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다수가 될 것이고 시온주의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

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에서 통과된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가 병존”한다는 미국의 제안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미국의 방안은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 공격에 아랍권의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교활한 책략이다.

부시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대한 아랍의 지원을 얻고 싶어서 자기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금방 사라져 버렸다.

유엔의 제안은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팔레스타인 점령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은 유엔의 제안을 수용했다.

미국의 제안은 지난 53년 간 유엔을 통과한 수많은 결의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런 결의안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런 결의안들을 무시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경비권”이라고 생각한다. 아랍 민중이 부패한 지배자들에 대해 봉기를 일으키고 미국의 석유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누르는 경비권 말이다. 미국은 1967년 이래로 184조 원의 경제·군사 원조를 이스라엘에 제공했다. 미국이 중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억압에 맞서 자기 방어와 항거의 권리를 갖고 있다. 미국이 제공한 최첨단 총·헬기·탱크·전투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맹이로 무장한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있다. 분리된 두 국가는 결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군사적으로 강력한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배할 것이다. 중동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유일한 선택은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귀환할 수 있어야 하고 소수 민족의 권리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 

제국주의의 두 얼굴

“나는 대기업,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고급 경호원 노릇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위한 깡패였다. 1914년에 나는 미국의 석유 이권을 위해 멕시코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이티와 쿠바를 내셔널 시티 은행의 친구들이 돈벌이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도 거들었다.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아메리카의 여섯 개 공화국을 약탈하는 것도 도와 주었다. 1909~12년에는 브라운 형제의 국제 금융 회사를 위해 니카라과를 정화하는 일을 도왔다. 1916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 설탕 산업의 이익을 도모해 주었다. 중국에서는 스탠드 오일이 무사히 빠져 나가도록 도와 주었다.”(미국 육군 소장 스메들리 버틀러)

한때 미국 국무부 관리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세계 무역센터가 공격당한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골드만 삭스는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기 위해 걸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주먹”

에 항공모함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미국 군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썼다.

미국 국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자 토머스 프리드먼도 1991년 걸프전 직전에 후쿠야마와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이 없으면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맥도날드는 맥도날 더글러스[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생산 업체]가 없다면 번창할 수 없다. 실리콘 벨리의 기술을 위해서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이지 않는 주먹을 미국 육군·공군·해군·해병대라고 부른다.”

이런 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하고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훨씬 더 타당하게 들린다. 서방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세계 지배 전략에서는 전쟁이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여긴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경제적 기구들을 지배한다. 이런 기구들은 날마다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책임이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외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제3세계에서는 세계무역센터 파괴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세 배나 많은 어린이들이 날마다 죽어간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는 거대한 빈곤층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다. 이런 불평등·빈곤·불의가 대중 반란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킨다.

미국은 유엔과 나토 같은 국제 동맹 기구도 지배한다. 미국은 이런 기구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거스

르는 모든 국가와 집단을 짓밟으려 한다. 가끔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도 감행한다. 1991년에 걸프의 석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전쟁이 그런 경우다. 어떤 때는 미국의 정치적 지배와 권력을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1999년에 세르비아 전쟁이 그런 경우다.

미국 정부는 아직도 몇몇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수하고 있다.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40년 전에 쿠바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년 전에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 이유는 이란이 미국 기업들을 점수하고 미국의 거대한 첩보 기지를 폐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사담 후세인이 1990년에 미국의 우방인 쿠웨이트를 침공해 미국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중동의 석유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비전” 이스라엘이나 친미 국가들을 후원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1974년 이후에만 8백억 달러(104조 원)를 이스라엘에 원조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국한테 받은 무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한다.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한다.

1984년에 이스라엘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을 때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이스라엘 정부에 15억 달러(1조 9천5백억 원)의 긴급 원조와 30억 달러(3조 9천억 원)의 일반 원조 자금을 제공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IMF나 세계은행이 아닌 미국 재무부가 일국의 경제를 구제한, 매우 희귀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지배자들은 자국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민간 정부를 전복시켰다.

1954년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과테말라의 하코보 아르벤스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르벤스 정부가 시행한 토지 개혁이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미국의 식료품 회사인 치키타의 전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1973년에 미국 지배 계급은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좌파 정부를 전복한 피노체트 장군의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1950년대에 이란에서 팔레비의 쿠데타를 지지했고, 196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르노 정부를 전복한 수하르토 장군을 지지했으며, 같은 해에 자이르에서는 요세프 모부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것을 지지했다. 이들 정권과 전 세계의 다른 많은 정권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국 민중을 쥐어짠다. 기업들을 위해 군사력을 내세워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 군대는 대영 제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서인도 제도로 확대되는 데 이용됐다. 그 덕분에 영국의 기업들은 값싼 원료와 새로운 시장, 저렴한 노동력을 쉽사리 확보할 수 있었다.

라이벌 기업들 간의 경제적 경쟁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작은 기업들이 파산하면 더 큰 기업들은 그들의 시장과 공장을 인수했다. 소수의 기업들이 각국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국가와 기업들은 점점 더 유착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경쟁 기업들과 분노한 노동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힘에 의존했다. 한편 국가는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부와 고용에 의존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많은 자본가 권력이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경쟁 때문에 제1·2차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간의 경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같은 끔찍한 전쟁이 여럿 벌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이라크를 상대로 한 새로운 전쟁 물의를 목격하고 있다. 그 전쟁은 무고한 남녀노소를 수도 없이 죽일 것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 벌어진 WTO 반대 시위 이래로 반자본주의 운동은 체제의 심장부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에 계속 도전해 왔다. 이제 반자본주의 운동은 그런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군사력, 즉 고리대금업자의 뒤를 따르는 집행관에도 도전해야 한다. 

발전 파업의 교훈

김태훈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단은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올봄 한국 정치의 주역은 바로 발전 노동자들이었다. 공공 3사 동맹 파업은 김대중 정부를 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발전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저항 때문에 지배 계급 일부는 분열했다. 3월 18일 한나라당 이부영·안영근 등 국회의원 26명은 “발전소 매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 정부는 더 이상 강경책으로 노조를 자극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차관 임내규는 “의원들의 거중조정이 자칫 노조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의 신경질적인 강경 탄압은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4월 2일 연대 파업을 유보하자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동자들은 “합의안 내용이 항복문서나 다름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은 “어쩔 수 없었다. 총파업 이틀째인 4월 3일부터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도부는 교섭 타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2차 파업 때는 2월 26일 1차 연대 파업 때보다 4만 명이 더 많은 16만 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배신당한 것을 안 4월 2일 밤에도, 명동성당에 2천5백여 명이 모일 정도로 발전 노동자들 자신도 굳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려 했다는 게 진정한 문제였다. 김대중은 발전 파업에 시종 일관 단호했다. 발전소 매각 철회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파산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3월 초부터 사복 경찰과 전투 경찰을 번갈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에워싸고, “연대 파업에 들어가면 허영구, 양경규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체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

했다.

노조 상층 기구가 정부에 의해 위협받자 노조 지도자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이홍우 사무총장은 “파업에 들어가면 공안정국이 됐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노조 지도자들은 소심하기 짝이 없었다. 현장 조합원 대중의 힘에 의존해 정부와 정면 충돌하기를 꺼렸다.

정부·자본가와 노동자 양쪽에서 오는 압력이 둘 다 막강할 때 노조 지도자들은 샌드위치 꼴이 되곤 한다. 발전 파업이 바로 그랬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김대중 정부와 발전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조 지도자들은 움썅달썅 못하다 결국 항복하고 만 것이다.

소모전?

그러나 파업 동력을 평계대는 것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 주장을 “국민파”(포퓰리스트들)한테서 듣게 되는 것은 아니리니다. “국민파”에 속하는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4월 8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동력이 부족했다는 건 평계에 불과하다. 우리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4월 2일 오전 10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못한다”고 못박았던 것이 바로 차수련 위원장 자신이었다. (“중앙파”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민파”의 연대 파업 회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3월 2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대 파업을 호소하는 발전 노동자 가족 사진 이장하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 파업을 철회했다.)

그랬던 “국민파”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왜일까? “중앙파” 지도부가 물러난 뒤 “국민파” 지도부가 추구하려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안을 최근 노동사회연구소의 발전 파업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파”의 이데올로기적 지도자격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은 “민주노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 힘이 약할 때는 힘을 비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그 동안 지나친 ‘소모전’ 양상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소 이사장인 김금수 씨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폐배주의도 안 되지만, 투쟁주의와 맹동주의도 안 된다.”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했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은근한 공격이자, 민주노총이 더욱 우경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현실주의를 표방함에도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가 “민영화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섭력”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교섭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파업이 필요했다. 정부와 사장들이 한 사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때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 투쟁에 의존하는 “투쟁주의”다.

발전노조 지도부 한테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 발전노조 지도부는 파업 철회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는 식으로 책임을 면피하려 했다. 이호동 위원장은 “총연맹으로 교섭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다. 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성원이 어려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교섭단이 아무리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라 하더라도 발전노조 지도부와 내용적 소통이 있지 않고서는 안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발전노조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안이라면 총회를 급하게 폐기시키고, 다른 쟁대위원들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로 복귀명령을 비공식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4월6일자 <노동자의 힘> 성명서)

대안건설하기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위기를 1998년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1998년 2월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정리해고 법제화라는 노사정 합의안에 동의했다가

현장 조합원들에 의해 불신임 당했다.

그러나 역사가 단순히 반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1998년 당시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국민파”였다. 이번에는 “중앙파” 차례였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노동자 투쟁의 성장은 좌파 지도부의 관료주의(소심한 무사안일주의)를 입증시켰다.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투쟁의 전망이 암울한 것은 아니다. 발전 노동자들의 단호함은 그야말로 영웅적이었다. 또한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부문이 노동자 운동의 열쇠를 쥐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분명 이것은 노동자 운동의 발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끝내 연대 파업 호소를 외면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 투쟁에 브레이크를 걸곤 한다. 그러나 힘이 센 차를 보통의 브레이크로는 멈출 수 없듯이, 노동자들의 힘이 셀 때는 브레이크가 먹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노조 지도자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투쟁이 발전할 수도 있다. 정권 말 위기에 처한 김대중이 선불리 구조조정을 서두르다 언제든지 다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계급 투쟁은 산업(경제) 쟁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칭의 정치적 계급 투쟁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 논쟁은 국가 권력의 문제, 대안의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계급 투쟁이다.

노동자 운동의 고양기는 사회 변혁을 바라는 활동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노동조합 쟁점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쟁점들을 회피하지 않고 주장을 펴고 때때로 그것들을 둘러싼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지한 투사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공교육 내실화인가 부실화인가

최승호(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회 준비위원)

현재 한국 교육이 붕괴됐다고들 한다.

하나의 대책이 지난 2월 14일 재경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비전 2011' 속에서 제시됐다. 핵심 내용은 평준화 해체, 기여 입학제 도입, 사립학교와 입시학원의 통합이다. 한 마디로 말해, '비전 2011'은 가진 자들을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 하자는 방안이다.

또, 지난 3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충수업의 부활, 체벌 허용, 전국 모의고사 및 국기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월 학기 및 봄방학 폐지, 학원 심야영업 단속 등이다. 한 마디로 말해, 학교를 입시학원처럼 만들어 사교육과 경쟁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다.

소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과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반기는 이유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부유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유일하게 환영하는 것은 2월 학기 및 봄방학의 폐지다.

이것은 겨울 어학연수 기간과 겨울방학을 맞추기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이 점에서 2월 학기 폐지는 오히려 사교육 강화 대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사들이 수업의 어려움, 전근을 위한 준비 등 때문에 2월 학기 폐지를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행정상 어려움 등을 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대조된다.

이번 대책안의 핵심은 **보충수업 부활**이다. 교사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수업의 양을 늘리자는 것이다. 지금도 교사들은 많은 수업 일수와 잡무로 교제 연구 시간은 평균 30분을 밑돈다. 학생들도 많은 과목과 수업 시간에 질려 있다.

체벌은 학교 권위주의를 강화해 수업의 질을 높여 보겠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은 피곤에 절어, 혹은 이미 학원에서 배워서, 아니면 자포자기해 거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의 매'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충수업과 회초리로 공교육이 내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교육부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교육부가 이러한 과거 회귀적인 대책을 내놓았을까?

보충수업과 체벌은 김대중 정부 이후 금지되었던 정책이다. 또, '내실화 방안'은 7차 교육과정에서 부르짖는 '개성 추구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 수준별 수업,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같은 구호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모순

교육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정부 내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에서 교육 부문이 밀렸기 때문이다.

아침 7시, 지각할까봐 정신 없이 뛰어가는 학생들. 학생들의 "새벽별 보기" 등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 김효명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7차 교육과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처우 개선, 사회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교사 쪼여 짜기와 학생 때려잡기뿐이다.

진보적인 교육 관련 단체뿐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와 보수적인 교육학자들도 이번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대중요법이라며 더 근본적인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경쟁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기어 입학제 허용 등이다. 그들은 특히 공교육 위기의 주범 운운하며 평준화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마음껏 돈으로 교육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열악해진 교육을 받는 처지가 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이러한 불평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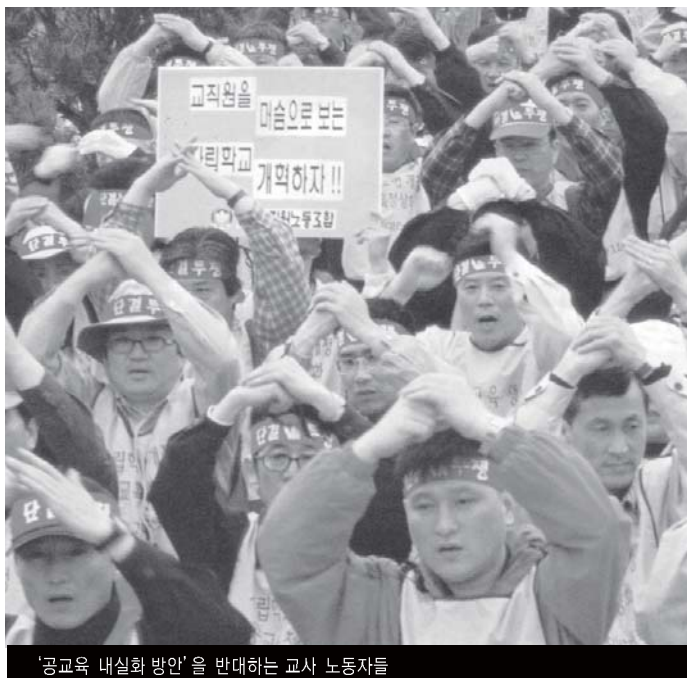
평준화는 단순한 형식적 평준화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 농어촌이나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평준화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직도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돼 중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

평준화 대상도 민주노동당 강령에 나와 있듯 국공립 대학교들까지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교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점차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입시지옥과 암기식 공부 속에서 붕괴된 공교육을 되살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길이다.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들어 각국은 구조조정과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국의 교육재정도 점차 삭감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반대하는 교사 노동자들

돼, 1990년 들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교육의 위기를 말하게 됐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불안한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고 고액 과외는 꿈도 꾸지 못한다. 더군다나 공교육 재정도 6퍼센트대에서 4퍼센트대로 삭감됐다. 국가는 교사들을 쪼여 짜고 학생들을 들볶으며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겨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 반면, 부자들은 평준화 해제 등을 요구하며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여기에 반대해서 싸워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내실화를 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공교육 내실화는 양립할 수 없다. 민영화와 공교육 내실화도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FX 사업과 공교육 내실화도 양립할 수 없다. 복지의 축소와 공교육 내실화도 양립할 수 없다.

이 모든 공격에 맞서 노동자 계급이 함께 투쟁할 때만 진정한 공교육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교조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연대하려 했던 것은 좋은 본보기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

구별되는 야만주의

김인식

자유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를 단지 전체주의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 숙청, 처형, 굶주림, 정치적 억압 등. 요즘 민주노동당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스탈린주의 논쟁’을 봐도 그렇다.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언쟁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스탈린주의를 파시즘과 동일시한다. 둘 모두 학살에 책임이 있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식이다.

이를테면, 진중권 씨는 북한이 “아주 극악한 파쇼 체제” (<참여사회> 2002년 4월호)이며, 스탈린주의와 파시즘 “양자 사이의 유사성과 친화성은 부정할 수 없다.” (<한겨레 21> 1999년 11월 4일치)고 말한다. 심지어 “공산주의[스탈린주의]야말로 파시즘보다 극악한 정치 체제”일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한겨레 21> 1999년 11월 25일치.)

물론 스탈린이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옛 소련이 붕괴한 뒤 모스크바 보안 경찰의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 덕분에 R W 데이비스(EH 카의 대작 <소비에트 러시아사>의 뒷부분을 공동 집필한 역사가)와 알렉 노브 같은 역사가들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자 수를 처음으로 사실에 기초해 파악했다. 그들은 스탈린 체제가 매우 유혈적인 체제였다고 결론내렸다. 1937년에 35만 3천 명이, 1938년에 23만 9천 명이 처형당했다. 1944~1948년에 소수 민족 강제 이주 과정에서 14만 명이 죽었다.

여기에 덧붙여, 굴락(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숫자가 1933년 2백50만 명에서 1953년에 5백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수용소 내 사망률은 자유민들에 비해 5~9배나 높았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강제 집단화에서 비롯한 기근 때문에 5백만 명 이상이 숨졌

다.

그러나 우익 역사가, 일부 자유주의자, 서방 언론들은 스탈린의 학살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는 아직 스탈린 시대에 처형, 가혹한 수용소 조건, 기근으로 사망한 실체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옛소련의] 문서 보관소 자료는 … 러시아 텔레비전과 대중 일간지들이 확고부동한 사실로 끊임없이 인용하고 서방 언론들에 의해 흔히 검증된 사실로 인정받는 매우 높은 수치와 크게 다르다.”

스탈린과 히틀러를 단순히 등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됐다. 물론 둘 다 살인마이자 진정한 사회변혁에 대한 사악한 반대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그래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스탈린의 야만주의는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밀어붙이는 데 사용했던 유혈낭자한 방법을 모방해 러시아를 공업화하겠다고 결정한 결과였다. 그러한 방법에는 무력을 사용해 농민의 토지를 빼앗기, 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부양하기 위해 농촌을 약탈하기, 노예 노동의 등장, 소수 민족 지배, 아동 노동,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테러 따위가 포함됐다. 스탈린은 영국에서 3백 년에 걸쳐 진행됐던 일을 20년 만에 끝내려 했다. 그 결과가 단 기간에 매우 집중된 사망자 수였다.

예컨대 노동 수용소 사망자 수는 대서양 노예 무역 사망자 수보다 적었다. 다만 이것은 3백 년이 아니라 25년 동안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아사자 수는 아일랜드와 인도에 대한 영국의 약탈로 인한 아사자 수보다 적었다.

소수 민족에 대한 스탈린의 억압은 끔찍했다. 1944~1945년 코카서스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체첸 인과 여타 소수민족들 가운데 4분의 1

이 죽었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는 이보다 더 끔찍하게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했다.

게다가 소수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야만은 나찌의 홀리코스트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나찌는 인종적 특징을 이유로 유럽의 유대인들을 할아버지와 손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싹쓸이했다. 이것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진정한 차이다. 나찌즘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발전한 정치적 운동이었다. 나찌의 야만주의는 정적이나 착취 강화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은 중간 계급의 좌절을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집시·게이·정신장애자 등을 물리적으로 박멸하는 ‘십자군’ 전쟁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노동 수용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아예 죽음의 공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날 스탈린주의가 위협하는 야만적 공포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스탈린주의의 공포는 역사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다 — 적어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많은 신흥공업국들에서는.

반면, 나찌즘은 위기와 실업과 불안정성이 증대할 때마다 위협적인 세력으로 재등장한다. (진중권 씨는 “적어도 유럽에서 파시즘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고 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찌의 위협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홀리코스트의 비할 데 없는 공포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진중권 씨는 스탈린의 정책이 레닌에서 비롯했다고 말한다. “스탈린의 정책은 레닌의 구상을 수미일관하게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1917년 직후 혁명적 시기에 억압의 규모와 1930년대 억압의 규모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1921년에, 혁명 정부는 여전히 반혁명 군대의 잔존 세력과 서방 정보 기관들의 암살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사형 집행 숫자는 1937년의 3퍼센트도 안 됐다.

사형 집행과 억압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단순히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1936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1928~1929년보다 1백 배나 많았다. 1936년은 스탈린이 고참 볼셰비키에 대한 지배력을 최종 완성했던 해다. 요컨

대, 스탈린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최종적으로 패배했음을 뜻했다.

진중권 씨는 이데올로기(“국가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북한 스탈린주의 관료와 남한 스탈린주의자(주사파)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비난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지어 주사파와 극우파는 서로 닮은 “쌍생아”라고까지 말한다. “극우파는 주사파가 필요하고 주사파는 극우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이 진 씨 주장에서 가장 해악적인 대목이다. 왜냐하면 실천에서 지독한 종파주의를 낳기 때문이다.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이 북한의 국경수비대(진 씨의 말을 빌면, “북조선 외교노선을 정당화시켜 주는 운동”)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엘이 역사의 반동”(〈참여사회〉 2002년 4월호)인 것은 아니다. 주사파가 북한 관료들을 지지하더라도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북한 관료는 북한의 지배 계급이고, 주사파는 우리 운동의 일부다. 주사파가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해 우리의 지배 계급에 맞서 투쟁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

남한에서 극우파와 주사파는 “쌍생아”가 아니다. 전자는 지배 계급의 일부이고, 후자는 전자가 끊임없이 박해하는 피지배 계급의 일부이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근본적인 계급 분단이 가로놓여 있다. 극우파의 주사파 탄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에이즈에 대한 거짓말

인진형

1981년 미국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31명의 남성에게 원인모를 면역결핍질환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이 새로운 질병은 에이즈(AIDS : 후천성 면역결핍증)라고 불렸다. 그 후 20여 년 간 3천6백만 명이 에이즈에 걸렸고 한 해에만 수백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 1999년까지 1천3백만 명의 아이들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다.

우리 나라에는 2001년 12월 기준으로 1천6백13명의 HIV 감염자와 2백39명의 에이즈 환자가 보고됐고 3백44명이 이미 에이즈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에이즈는 면역결핍질환이 없는 사람에게서 면역결핍상태와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된 경우에 진단된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들은 정상인이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는 온갖 곰팡이와 균이 폐렴을 일으키고 변형된 세포가 죽지 않아 암으로 발전한다. 치매나 다른 신경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1984년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임이 증명된 이후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AIDS를 진단한다. 하지만 HIV에 감염된 사람의 상당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계?

최초에 발견된 31명의 에이즈 환자들은 모두 동성애자였다.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그 몇 배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심지어 아기와 노인도 포함돼 있었다. 일부에서는 수혈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CDC는 최초의 에이즈 환자 31명이 남성 동성애자였

다고 발표했다. 가톨릭 교회와 각국 정부, 그리고 보수 언론은 CDC의 발표를 동성애자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선전하는 데 이용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야만스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왔”다며 동성애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가톨릭 교회와 각국 정부는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이고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에이즈에 대한 진실은 발표하지 않았다.

- HIV는 동성,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 혈액이나 혈액 체제에 의해, 그리고 임신중이나 출생 직후, 수유중에 어머니로부터 아기에게 전염된다.
- 15년 이상의 연구 동안 일상 접촉이나 곤충에 의한 전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이성 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가장 주요한 전염 방식이다

국내 HIV 감염자 현황, 2001. 12. 한국에이즈퇴치연맹(비율은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람들. 수직 감염이란 어머니에게서 임신·출산과 수유 중에 아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에이즈 통계에서 HIV 감염자 중 동성애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 인구 중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턱없이 낮게 추정한다.

남성 동성애자가 HIV 감염률이 높은 것은 성교 방법의 문제로 밝혀졌다. 특히 항문 성교가 에이즈의 전염에 취약한데 이는 항문 안쪽, 그러니까 직장의 벽이 질에 비해 무척이나 얇고 물리적인 접촉에 취약하기 때문

계	성접촉				수혈		혈액 제제	수직 감염	약물 주사	기타	역학 조사중
	소계	국외 여성	국내 여성	동성애	국내	국외					
1,613	1,293	330	589	374	10	11	17	2	2	141	137
비율	96.8	24.7	44.1	28.0	0.7	0.8	1.3	0.2	0.2	-	-

국내 HIV 감염자 현황, 2001.12. 한국에이즈퇴치연맹(비율은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람들, 수직 감염이란 엄마에게서 임신·출산과 수유중에 아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말한다.

이다.

HIV는 정액이나 질액과 함께 성교시 상대방에게 전염된다. 성교 방법과 무관하게 전염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콘돔 사용 캠페인에 대한 국가 예산이 증가했던 몇 년 간 HIV 전염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1999년 프랑스에 5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었던 반면 영국에서는 그 수가 절반도 안 되는 1만 6천여 명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 감축 직후인 2000년 한 해에만 에이즈 환자가 14퍼센트 증가했다.

에이즈와 빈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원인균인 것처럼 선전하는 각국의 지배자들은 에이즈가 창궐하는 진정한 이유인 빈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에이즈가 전염병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가 없다.

전 세계 3천6백만 명의 HIV 감염자 중 70퍼센트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없는 곳에 살고 있다.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사이에서 또 다른 에이즈 환자를 찾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잠비아의 에이즈 환자 수용시설 자원 봉사자 비올렛 므위누카는 이들의 비참한 삶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상황이 가장 나빠진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굶주림과 약물 부족으로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특히 가장이 앓게 되면 이 질병은 빈곤과 상승 효과를 낸다. 만약 한 가족의 가장이 월요일에 아프면 화요일에 그 가족은 모두 굶는다. 그 결과 모든 가족

이 병에 걸리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난 폭격을 퍼부은 미국의 1년 국방예산(3천4백30억 달러)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에이즈로 죽어 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6백39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비로 지원한 돈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1인당 필요한 약값(1천3백만 원)의 10분의 1이다.

에이즈는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신이 내린 벌이 아니다. 독감이나 식중독처럼 병원체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다. 영영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도 아니다. 이미 개발된 약으로도 수많은 에이즈 환자의 삶을 연장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빈곤을 퇴치하고 약을 보급하고 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을 없애는 것만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기는커녕 에이즈는 빈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과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

김인식

3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3백만 명이 거리를 뒤덮었다. CGIL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이 호소한 이 시위는 전후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였다. 4월 16일에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해 12월 반란으로 데 라 루아 정권이 타도됐다. 이 나라는 1930년대 이래 어떤 공업국도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경제 공황에 봉착해 있다.

국제적 대중 운동은 세계적 규모에서 좌파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그림의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뒀고 조지 W 부시의 국내 인기는 높다. 유럽에서는 우익이 부상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했고 지금 프랑스 대선에서도 우파인 자크 시라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개량주의)는 1930년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됐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민주노동당 상근간부층의 배신으로 발전 파업은 패배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더 복잡한 양극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사회 위기 때마다 균열이 생긴다. 1930년대에도 그랬다. 길게 보자면, 오늘날에도 좌우 분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999년 말 시애틀 시위는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정치적 급진화 과정을 극적으로 자극했다. 그 때 이래 2년 반 동안 반자본주의 운동은 거대하게 성장했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심화시켰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은 반군국주의·반전 운동과 결합됐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좌절을 겪지 않았다. 올바르게도 반자본주의 운동은 민족적·애국적 압력을 견뎌 냈다. 지난해 12월 브뤼셀의 유럽연합 정상회담 때는 두 개의 거대한 시위가 열렸다 — 10만 명이 참가한 노동조합 시위와 3만 명이 참가한 반자본주의 시위.

이탈리아의 반자본주의 운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여름 제노바에서는 30만 명이 참가한 반자본주의 시위가 벌어졌다. 가을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열렸다. 아시시에서는 25만

명이 반전 집회에 참가했다. 올해 3월 로마에서는 주말마다 시위들이 열렸다. 베를루스코니에 반대해 12만 명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위해 10만 명이, 3월 말에는 3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9월 11일 테러가 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 미국에서 조차 운동이 회복되고 있다. 2월 뉴욕에서는 2만 명이 언론의 혹독한 비난과 경찰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WEF(세계경제포럼)에 항의했다. 이것은 반자본주의 시위일 뿐 아니라 반전 시위이기도 했다. 지방 방송국은 이 시위가 지난 10년 동안 뉴욕에서 벌어진 가장 커다란 시위였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고무발아 활동가들은 4월 20일 워싱턴 반전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이런 조직된 반대에 신경써야 했다. 왜냐하면 전쟁 문제에서는 높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다른 문제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Time/CNN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퍼센트가 부시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대기업에 훨씬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50퍼센트가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A’를 줬지만, 경제에 ‘A’를 준 사람은 13퍼센트뿐이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적 강국이긴 하지만 경제력은 전후 시기 동안 핵심 경쟁국들에 비해 기울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했던 유럽과 중동 지배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계획을 비난했다.

한국의 반자본주의 운동

한국에서는 아직 바르셀로나와 로마 같은 규모의 시위를 볼 수 없다. 그러나, 2000년 10월 서울에서도 2만 명이 모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것은 국제 반자본주의 운동의 맥을 잇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만여 명의 시위 참가자 가운데 압도 다수가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 대열의 90퍼센트 가까이 됐다. 이와 함께,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가 인기를 끌었던 것에서 보듯이 다양한 집단들이 이윤 지상주의(사실상 자본주의를 뜻한다)를 문제로 여기고 시위에 참가했다.

그 뒤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가 낳는 특정 폐해와 양상(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분산됐다.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투

쟁은 이처럼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계급 투쟁은 대안을 논의하는 수준으로까지 고양됐다. 3월에 18개 진보단체가 모인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가 한 예다. ‘사회포럼 2002’에 참가한 단체들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논쟁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둘러싼 것이었다. 민주노총 등은 공공성 강화(국가의 재생이용)를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가 규제 아닌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옹호했다. 좌파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공공성 강화를 지지한다.

올해 초 공공 3사의 파업도 단지 특정 작업장 쟁점이 아니라 정부 정책인 사유화를 반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유화가 아닌 다른 대안(공공성 강화)을 요구했다. 공공 부문 파업의 이런 정치적 성격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커다란 연대 파업 압력을 받았다. 비록 발전 파업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배신 탓에 쓰러진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노동자 운동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 주었다.

지난해 메이데이 때는 “김대중 퇴진”을 둘러싸고 운동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1년이 지난 지금 김대중 퇴진은 더 이상 논쟁 거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김대중 퇴진 이후의 대안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정치적 사실이 있다. 발전 파업이 끝난 직후 우파들이 반격(노무현에 대한 ‘색깔’ 공세)에 나섰다. 노무현을 공격하는 것인 동시에 좌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색깔’ 논쟁은 이념의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문화일보>와 YTN이 TNS에 의뢰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1.7퍼센트가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2년 전에는 63퍼센트였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7.5퍼센트였다.(2년 전에는 35.1 퍼센트였다.)

기호를 옮겨 줘기

양극화와 동시에 모순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모순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파괴적 결론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건설적 결론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동안 양극화는 왼쪽으로 이동해 왔다. 그러나 역류가 존재한다. 너무 강한 나머지 전체 흐름을 뒤바꿀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유럽 사회민주당 정부들의 실패는 1990년대 선거에서 부분적인 패배를 불렀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이 그랬다. 김대중의 파산

은 우파가 준동할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심각한 패배를 겪지 않았다.

지금 운동은 강력한 단결과 연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그 기반 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인 행동에 끌어들이 수 있는 기본 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좌파는 강 어귀의 삼각주와 같다. 썰물일 때 좌파는 말라 버린 수로가 된다. 그러나 밀물일 때는 강력한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무엇 때문인가? 부분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부상이다. 국제적으로는 1995년 공공 부문 총파업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1997년 1월 대중 파업 이래 나타난 특징이다.

그러나 더 주된 것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아니라는 새로운 각성이다. 대기업과 기성 정치 체제 그리고 그들의 무장 가신들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의 적이다. 그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상관 없이 말이다.

우리의 첫번째 임무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계급 운동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수한 슬로건에서 체면을 찾는” 것은 종파(주의)다.

그러나 운동의 일부가 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미 운동 안에는 위기가 존재한다. 각각의 위기는 중요한 사상적·전략적·전술적 전투를 불러일으킨다.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적지 않은 단체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폭력’을 양비론적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래서 양측 모두에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 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전략적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운동의 단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다수가 근본적 사회 변혁의 원칙 일반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체적 상황에서 핵심적인 전략·전술 문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독립적으로 변혁 운동가들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협력해 다수를 공동의 캠페인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운동이 성장할수록 변혁 운동가들의 규모도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사상이 광범한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의 투쟁이 운동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우리의 국제주의가 운동의 국제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줘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운동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활동가들은 세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기꺼이 들을 태세가 돼 있다. 우리가 그들을 운동에 확실히 끌어들이려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중 운동 속에 있다면, 때로 진지한 정치 토론이나 ‘심오한’ 사상 이론을 피해야 단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흔들리곤 한다. 운동의 단결을 위해 이데올로기까지 통일돼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운동이 직면한 근본 문제들에 대해 주장하고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지금의 문제를 보려는 사람들이 다수파가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 분석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단결이 서로의 차이를 옆으로 제쳐둔 채 피상적 의무감으로 건설된 단결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효과적이다. 



공동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쿠데타를 좌절시킨 민중 봉기

외신에서

지난 4월 13일 베네수엘라 빈민들이 쿠데타를 격퇴했다. 그 이틀 전에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축출하려 했던 쿠데타 시도는 고용주 조직이 군 장성들, 가톨릭 교회의 수장, 심지어 부패한 노조 지도자의 묵인 아래 만들어 낸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민중 봉기로 패배했다.

카라카스 외곽 언덕빼기 관자촌의 빈민 수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뛰쳐나와 쿠데타에 저항했다. 폭동과 약탈을 자행한 사람들도 있었고, 대통령궁과 주요 군사 기지를 포위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주요 TV 방송국을 장악한 사람들도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노점상, 공장 노동자, 가정부, 트럭 운전기사들”이 차베스를 방어하기 위해 봉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군부를 분열시켜 쿠데타 시도를 물리쳤으며 차베스를 권좌에 복귀시켰다. 쿠데타의 실패는 미국 정부와 조지 W 부시 일당의 심각한 패배이기도 하다. 남아메리카의 이 국가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15퍼센트를 공급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부시 주변 인물 중 적어도 일부는 쿠데타 음모를 부추겼던 듯하다. 쿠데타를 모의하고 시도한 세력은 베네수엘라의 고용주들이었다. 그들은 차베스가 국영 석유회사 이사진을 교체한 것을 빌미로 공장을 폐쇄했다. 주요 노조 연맹의 한 부패한 지도자는 중간 관리자과 경영진의 지지를 받은 공장 폐쇄를 “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자유노련(IFTU)이 그를 지지했던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지난 주 공장 폐쇄 둘째 날 카라카스에서는 중간계급이 대거 참가한 차베스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더 소규모의 차베스 지지 시위대와 충돌했고, 총격전이 발생했다. 그러자 군부 내의 쿠데타 지지 세력이 “유혈 사태를 방지”한답시고 개입했고, 차베스의 사임을 발표했다. 고용주 조직의 우두머리인 카르모나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포하고 국회를 폐쇄했으며 차베스 지지자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했다.

카르모나의 계획을 망쳐 놓고 그를 권좌에서 쫓아낸 것은

빈민들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쿠데타를 지지했던 많은 지배계급 인사들은 민중 봉기를 목격한 뒤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군부 내에서 내전이 벌어질까 봐 두려웠다.

그들은 또한 1989년의 거대한 폭동, 즉 “카라카스”가 되풀이될까 봐 두려웠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와 IMF의 긴축 조치에 반대한 빈민들은 자생적인 봉기를 일으켰다가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결국 진압당했다.

그런 혼란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으로도 군 수뇌부가 카르모나에게 사임을 강요하고 차베스의 복귀를 발표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관건이다

쿠데타 다음 날 우고 차베스를 타도하려 했던 세력은 거리에서 저항하는 빈민들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차베스를 설득해 그가 빈민들을 다시 달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덕분에 차베스는 복귀할 수 있었다.

쿠데타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군사령관들은 이제 차베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그들은 차베스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건”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베스의 복귀 첫 마디를 들어 보면 스스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국민 화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회의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고용주들, 정당과 그 지도자들, 노조와 언론매체”가 포함될 것이다. 차베스는 길거리에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폭동과 약탈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사태를 반성하십시오.”

그것은 길거리로 뛰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그들은 사장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쿠데타 시도를 묵인한 신문과 TV 방송국 소유주들에게 격분했다.

그들은 쿠데타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군사령관들의 퇴진을 원한다. 지배층의 사회 통제 구조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

들의 힘에 도전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많은 좌파가 했던 것처럼, 차베스에 의해 존해 상명하달식으로 활동해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쉽사리 편을 바꾸는 중간계급 군 장교들이 아니라 노동자와 빈민들이 수행하는 아래로부터의 직접 행동이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취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이 결코 실업자와 반(半)실업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공격은 부자들, 다국적 기업들, 백악관의 부시 일당의 손에 돌아나는 것에 불과하다. 

공격받는 사회주의?

이수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권좌에서 쫓겨났다. 복귀했다. 기성 언론들은 “사회주의 개혁”으로 민심을 잃은 “독재자”가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퇴진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것으로 보도했다.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러나 빈곤·불의·불평등 또한 엄청나다. 인구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지주가 60퍼센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빈곤층이고, 국부의 40퍼센트를 외채 상환에 쓰고 있다.

1970년대에 들이닥친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베네수엘라 자본주의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유가 폭락으로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노동자·농민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반면, 부자들은 석유 수입으로 부를 쌓았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민주당(COPE)과 민주행동당(AD)은 중남미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20년 동안 중간 계급의 소득은 70퍼센트나 폭락했다. 부패에 찌든 기성 정당들은 무기력했다. 군부 내에서는 주로 뿌리 부르주아지 출신의 소장파 장교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했다. 1983년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차베스의 지도 아래 비밀리에 ‘볼리바르 혁명 운동’(MBR-200)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상은 민족주의와 갖가지 좌파 사상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카라카소”, 즉 빈민 대중의 자생적 봉기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은 봉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나 민주행동당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부는 봉기를 유혈 진압했다.

‘볼리바르 혁명 운동’의 소장파 장교들은 카라카소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1992년에 페레스를 몰아내고 “명예롭고 애국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의 쿠데타는 실패했고 그 지도자들은 투옥됐다.

1990년대에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민중은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베네수엘라 최대 노조 연맹 베네수엘라 노총(CTV)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총파업을 호소하게 한다거나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AS)과 급진당(Causa Radical) 같은 좌파 정당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으로 실패했다.

노동자의 18퍼센트를 아우르는 CTV는 철저하게 관료들의 통제를 받았다. CTV 관료들의 생활 조건은 대중의 실제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CTV 지도자들은 단지 압력용으로만 파업을 호소했고, 파업이 정치 투쟁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면 바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CTV는 “말 안 듣고” “분란을 일으키는”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사장들에게 넘겨 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이런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MVR)이 출범했다. 군부 내 소장파 장교들과 그 밖의 다른 중간 계급 부문의 주도로 결성된 MVR은 공산당(PCV), MAS, 우리의 조국(Homeland for All/PPT) 같은 상이한 좌파 경향들을 포괄하는 애국전선을 만들었다.

“볼리바르 혁명”

1998년 12월 차베스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제헌회의를 구성해, 완전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자립을 강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헌법은 소위 “볼리바르 혁명”의 초석이 될 것이었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결코 사회주의를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제 노동자 운동의 촉진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의 몫을 더 늘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차베스는 “야만적인 신자유주의”를 비난했지만,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고 고용주들의 노동 유연화 전략에도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1999년에 차베스는 “국가가 필요한 만큼 시장도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추진한 개혁 입법의 일부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공기업 단체협약을 “국가 재정에 무책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파업을 금지할 수 있었다. 국가가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예외 없이 해고할 수도 있었다.

1999년과 2000년에 차베스 정부는 유가 인상과 세계 경제 호전 덕분에 그런 대로 잘 나갔다.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의 사유화를 중단시키고 이 회사의 일부 소득으로 공공 지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래서 외채나 통화량을 늘리지 않아도 됐고, 자본가 계급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피할 수 있었다. 2000년 공공 지출은 42퍼센트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들은 차베스를 지지하는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생활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2001년에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닥쳤다. 특히 빈민층이 고통을 겪었다. 환율은 늘어났고 볼리바르 운동에 대한 지지는 더욱 낮아졌다.

작년 11월 23일 차베스가 49개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는 시도였다. 많은 사회·경제적 개혁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개혁 입법 중에서 특히 세 가지가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정부가 유흥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거나 지주에게 경작을 강제하는 “토지법.”

석유와 가스 부문의 외국 자본에 대한 세율을 166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고, 자국 내에서 채굴한 석유와 가스에 30퍼센트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화수소법”

소규모 어업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정 해안 지대 내의 대형 트롤 어업을 금지한 “해안지대법.”

페데카마라스(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나 부르주아 언론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았고 “마르크스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사실, 그런 조치들은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들이 간혹 선택했던 국가의 경제 개입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이 조치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사유화, IMF 긴축조치, 시장 자유화, 모든 사회 생활에 도입된 시장의 논리, 특히 다국적 자본의 명령에 대한 굴종 등)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차베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투자를 중단하고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합법적인 방법과

“냄비” 시위나 12월 10일의 공장 폐쇄 같은 방법들을 동원해 대항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12월 10일의 공장 폐쇄와 상가 철시를 두고 가당치도 않게 ‘노동자와 고용주의 연합 총파업’으로 묘사했다.

자본가들의 반발에 부딪힌 차베스는 처음에는 공세적으로 나갔다. 그는 군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제의 개혁 입법을 고수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대중 시위를 호소했다. 12월 18일에는 농민들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은 국유화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격돌

그러나 반정부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2002년 1월 13일, 베네수엘라의 “유력” 일간지 <엘 나시오날>에는 “카라카스 군대 선언”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실렸다. 차베스에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문이었다.

1월 23일에는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모두 거리를 점거했다. 그 시위에 자신감을 얻은 기득권층은 언론을 통해 차베스가 대중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는 그의 사임 여부가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떠들어 댔다.

차베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테러와 싸우는 테러리즘”이라고 비난하자 미국은 그에게 테러리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유가 하락과 국내외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지배 계급의 공세, 미국 제국주의 위협 등 안팎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한 차베스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2월 13일에 그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3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차베스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예산안을 22퍼센트 삭감하고 공공 지출을 7퍼센트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콜롬비아혁명군과 연계 의혹에 시달린 내무장관도 교체했다.

차베스의 양보를 목격한 지배 계급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베네수엘라 군인·언론인·야당 정치인 등이 미국 대사관을 드나들면서 쿠데타 시나리오를 문의하는 등 차베스 축출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석유회사 경영진을 자기 주변 인사로 교체하자 이를 계기로 대중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한편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결국 이번 쿠데타는 가톨릭 교회·부패한 노조 관료 집단 등과 손잡은 자본가 계급이 도시 빈민과 농민·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포퓰리스트 정부를 타도하려 한 시도였다. ■

이탈리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와신에서

4월 16일 이탈리아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1천1백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20일 전인 지난 3월 23일 토요일에는 3백만 명의 노동조합원·학생·이주노동자·실업자·연금소득자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위대를 실어 나르기 위해 약 9천2백 대의 버스, 61량의 특별 열차, 5대의 비행기, 4척의 배가 동원됐다.

언론은 이번 시위가 3월 19일 암살당한 정부 고문 마르코 비아지와 관련한 테러 반대 시위처럼 보도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암살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시위는 주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보장하는 노동법 18조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번 시위는 이탈리아에서 50년 만에 일어난 최대 규모 시위였다. 주최측은 노동조합이었지만, 그 전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럽연합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반자본주의 정신이 로마 시위에서도 드러났다.

밀라노에서 온 이동통신노동자 안드레아는 “오늘날 우리는 시장의 법칙에 유용한 존재일 뿐입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사장들이 우리를 쥐어짜 더 많은 이윤을 뽑아 내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게 되면 인간다운 삶의 희망도 간직하지 못한 채 내동댕이쳐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반자본주의

작년 여름 제노바에서 있었던 거대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생겨난 여러 사회 포럼의 참가자 수만 명도 시위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행진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동조합원들도 정의를 위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연대감을 표시했다.

이탈리아 사회포럼(ISF)의 비토리오 아벨레토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전 입장을 분

명히 밝힌 시위대도 많았다. 가장 인기 있는 스티커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장군 (general)은 오직 파업 장군 (General Strike:총파업)뿐”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도 있었다.

시위를 뒤덮은 것은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 (CGIL)의 붉은 깃발이었다. 시위 행진이 워낙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민주좌파당[공산당의 후신]과 마르케리타 정당들 [가톨릭과 중도 좌파의 느슨한 연합]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했다.

이 정당들이 참여했던 “중도 좌파” 연립 정부가 친시장 정책들을 밀어붙여 대중의 환멸을 자아냈고 그 때문에 작년에 베를루스코니가 당선됐다. 언론 제벌인 베를루스코니가 이끌고 있는 연립 정부에는 이민을 반대하고 지역 차별적인 북부동맹 (NL)과 파시스트인 국민동맹 (NA)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4년에도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한 총파업과 시위가 베를루스코니를 퇴진시킨 적이 있었다.

3월 19일의 마르코 비아지 암살 사건은 이탈리아의 과거를 상기시켜 준다. 노동법 18조 개정을 추진하던 비아지는 테러 조직 ‘붉은 여단’의 조직원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러나 우파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1970년대에도 이탈리아의 우파와 국가 권력은 자기들이 저지른 암살과 테러를 좌파의 소행인 양 날조하곤 했다. 이른바 “긴장 조성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테러리즘의 대안과 사회 변혁의 원동력을 보여 주었다.

총파업

4월 16일 1천1백만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좌파당 계열의 CGIL, 가톨릭계의 이탈리아기업노동자동맹 (CISL), 우파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이탈리아노동자연합 (UIL) 세 노총이 주도한 이번 8시간 파업으로 이탈리아 전역이 사실상 마비됐다.



비행기·기차·버스·여객선 등 대중 교통이 멈춰 섰고, 학교·은행·우체국·공장·관공서도 문을 닫았다. TV도 생방송은 불가능했고, 라디오에서는 간간히 뉴스만 흘러나왔다.

자동차 제조업체 피아트는 파업 불참률이 48.7퍼센트라고 발표한 반면, 노조 측은 파업 참가율이 90퍼센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영 전력회사 에넬이 전력 소비가 여느 일요일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히자, CGIL의 지도자 세르지오 코페라티는 공장이 멈추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성공적인 파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은 사실상 월요일부터 시작됐다. 신문 기자와 인쇄공들의 24시간 파업으로 화요일자 신문이 전면 빨간 중지됐다. 항공 관제사·조종사·승무원들도 파업에 들어가 항공 운송이 마비됐다.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은 깃발, 배너, 풍선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피렌체에서 30만 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로마·밀라노·볼로냐의 거리마다 2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축제 분위기에서 행진을 했다. 피아트 본사가 있는 북부 토리노에서도 1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로마에서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로베르토 베니니가 포폴로 광장의 시위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굉장한 시위입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요.”

볼로냐의 시위대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락 밴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행진했다.

무솔리니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로마 시위에 참가한 지롤라모는 “지질학자인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불안정한 임시직 고용 계약 때문입니다. 저는 노동법 18조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공업화학자 주시는 “정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짓밟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 더하기 피니[국민동맹의 지도자]는 무솔리니”라는 구호가 적힌 가짜 관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번 파업은 1982년에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파업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전국적인 총파업이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쉽게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는 재계 지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파업으로 국가의 일부는 멈추겠지만, 국가를 현대화하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새로운 실업수당 시스템을 의제 삼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994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베를루스코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히 저항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를 뒤덮은 총파업의 물결

중국.....

노동자들이 시장 개혁을 거부하다

한은솔

중국에서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가 발생한 지역은 국유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중국 동북부의 다칭과 랴오양이다.

헤이룽장성의 다칭은 중국에서 가장 큰 유전 지대다. 3월 1일 다칭석유관리공사 해고 노동자 3천여 명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회노동보험비 인상과 난방비 지급 중단에 항의했다.

시위 대열은 한때 5만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 중심지였던 철인 광장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쓴 소자보가 나붙었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즉석 강연이 열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기존의 어용 노조와는 다른 독립노조(‘대경 석유관리국 매단공명직공 임시 공회위원회’)를 조직했다. 어떤 노조 간부는 이를 “자본측의 노조”가 아닌 “노동자의 노조”라 일컬었다.

시위가 장기화하자 회사는 “금년에는 보험비를 올리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럼 내년엔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냐”며 투쟁을 계속했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 대표들이 초기에 체포됐는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4주 연속 시위를 벌여 한때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다칭에서 남쪽으로 약 650km 떨어진 랴오닝 성의 랴오양 시에서도 3월 11일 20개 국유기업 해고 노동자 5천여 명의 연대 시위가 있었다. 시위 대열은 하루만에 3만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은 철합금 공장, 피스톤링 제조공장, 방직공장, 피혁공장 등의 해고 노동자들이었다.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2년째 밀린 임금 지급·실업수당 인상·부패 경영자 처벌·시 정부 주임 파면을 요구했다.

철합금 공장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인민을 위하지 않고 부패분자를 비호한다. 우리 대표들을 잡아

면서 왜 부패분자는 잡아가지 않는가? 몇 억 위안이나 착복한 우리 공장의 판이청은 왜 안 잡아가는가? 크고 작은 좀벌레들이 공장에서 수십 억 위안의 공금을 해치우는데 왜 그들은 잡아가지 않는가?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시 정부는 대표자들을 구속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불법 시위 조직죄’로 야오푸신 등 노동자 지도자 4명을 구속했다. 이에 분노한 4만 명의 노동자들은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다급해진 시 정부는 체불 임금 일부 지급과 연금 두 배 인상을 제시하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오푸신이 구류소 안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은 시 정부의 제의를 거부했다.

베이징의 중앙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두 지역의 노동자 시위가 “해외 불순 세력과 결탁돼 있다.”고 호도하면서 시 정부에게 시위를 빨리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지방 정부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약간의 보상을 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 지도자들을 긴급 체포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했다.

시위의 확산과 연대를 두려워한 중앙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자 시위가 연이어 발생했다. 랴오닝의 푸순에서 수천 명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가장 통제가 심한 수도 베이징에서도 자동차 제조공장 퇴직 노동자들이 의료보험비·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했다. 쓰촨, 휘양, 꾸이저우, 광둥에서도 노동자 시위가 잇달았다.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노동자 시위가 서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시장 개혁

이번 시위의 중심지였던 다칭과 랴오양은 사양길로 접어



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라오양 시위대가 제기한 국유기업의 ‘부패 경영자 처벌’ 요구는 사회주의의 꽃이요 상징이라는 국유기업이 사실상 관료들의 사적 소유물과 다름없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이 국유기업 매각·파산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었겠는가.

또, 다칭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국유기업 경영자의 소득 격차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다칭 시위 때 뿌려진 “해고 노동자들은 지도자 마오쩌둥을 그리워 한다”라는 제목의 전단은 “현 석유관리국 관리는 매달 고액의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상여금도 가장 많이 챙긴다”고 폭로했다.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 간판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사실 상 경제적·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됐다.

독립 노조

이번 시위에서 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만하다.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귀머거리의 귀’(聾子的耳朵)라고 조롱하는 관제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자 조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불법을 감수하고 독립 노조를 통해 투쟁에 나섰다.

다칭에서와 달리 라오양에서는 독립 노조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개 공장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나섰던 것을 보면 배후에 독립 조직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시위 발생 직후 중국 정부는 허겁지겁 실업수당과 연금 지급을 위해 860억 위안(약 14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이 양보는 정부가 파문공을 희생양 삼아 저항 세력을 억누르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외증에 이워진 것이다.

이번 시위는 노동자들에게 시장 개혁과 정부의 탄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1989년 천안문 항쟁 때와는 달리 현재 크고 작은 소요가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시장 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이것은 더 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저항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구속된 파업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하고 있는 중국 다칭 노동자들

든 국유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당연히 시장 개혁의 충격이 가장 컸던 지역이다.

라오닝 성만 보더라도 1980년대 시장 개혁이 시작된 이래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가 실업자나 불안전 고용 상태로 전락했다. 과거의 일개미들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나마 회사가 보장해 주던 알량한 복지 혜택도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라오양의 한 노동자는 “난 지금 무일푼이다. 설사 내가 자살하더라도 장례비조차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며 절박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한탄했다.

과거에 마오쩌둥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스탈린식 중공업 발전 모델을 채택해 급속한 자본 축적을 이루었다. 시장 개혁 후 중국 지배자들은 또다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다칭의 한 노동자는 “[과거] 생산 총력전 때 우리는 일을 같이 차가운 만두를 먹어야 했고, 엉성한 흙집에서 자야 했다. 10월에도 공사장 땅이 쇠처럼 얼어붙어 우리는 굴착 작업을 모두 맨손으로 해야 했다. 사람 몸으로 석유를 뽑아 낸 거다. 그런데 회사는 ‘감원해서 효율을 높이자’며 우리를 패대기치듯 버리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번 노동자 시위는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거짓말을 밝히 드러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권력의 주인이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



4월 21일 프랑스 대선

열 명 중 한 명이 근본적 변화를 바란다

승영

작년 이탈리아, 덴마크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우파가 승리했다. <조선일보>는 “포르투갈 총선에서 좌파의 패배는 유럽연합(EU)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정치적 우파 바람을 재입증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 대선에 출마한 극좌파 후보 아를레프 라기에르의 돌풍은 다른 그림을 보여 준다. 공공연히 혁명을 주장하는 트로츠키주의 정당 뤼프 우브리에르(LO:노동자투쟁당)의 라기에르가 여론 조사에서 1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10명 중 한 명이 프랑스 사회의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는 기성 정치의 위기를 보여 준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불만은 니스와 미요의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나타났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 동안 조스팽의 사회당 정부는 사장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조스팽 정부가 사유화한 공기업 수는 그 전의 두 보수 정권보다 많았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주 35시간 노동법이 제정됐지만, 그 대가로 조스팽은 사장들에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물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했다. 1995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채취한 복지 정책들이 공격당했다.

조스팽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치안 강화, 주민세와 소득세 삭감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시라크와 일치한다. 영국의 <가디언>은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사람의 공약이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프랑스 민중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LO돌풍’은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이다. LO의 공약 ‘노동자 해고 금지법’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주 작은 도시에서도 LO의 후보 라기에르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몰려든다. 지난 3월 28일 라기에르는 아미앵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자본가들의 경제는 파산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의식주 · 의료 · 교육 ·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노동 계급입니다.”

그녀의 연설을 들은 학생 로랑은 “그녀의 말은 사실이에요...정치인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내 친구들은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난 라기에르에게 투표를 겁니다.” 하고 말했다.

LO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프랑스 노동자 운동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뜨거운 겨울”, 즉 1995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거치면서 프랑스 노동자 운동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맥도날드 노동자들이 파업의 물결을 이끌었다. 프랑스에서는 젊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의 대열로 나서고 있다. 그들은 급진적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런 열망이 LO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LO의 성장은 보수 언론들의 ‘유럽 우경화 테제’가 일면적 분석이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우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우파가 집권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더욱더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계급 양극화의 한쪽 측면을 과장하는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자본가들은 더 우파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좌도 성장했지만, 극우도 성장했다. 나찌인 국민전선(NF)의 장-마리 르펜도 1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 때문에 그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의 왼쪽 편에서는 더 급진적 대안을 찾는 노동자를 볼 수 있다.

일마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베를루스코니의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시위에 3백만 명이 참가했다. 그 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50만 명의 반자본주의 시위가 있었다. 그들은 “자본주의 유럽”에 반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도 반대했다. 그들의 구호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였다. 프랑스 대선은 선거 무대에서도 급진적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헐리우드 전투

작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기 전에, 조지 W 부시의 보좌관이 헐리우드의 중역들을 만났다. 2차 대전 때와 같은 헐리우드의 활약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헐리우드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민주당원들이다. 지금 그들은 부시의 전쟁을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다.

<블랙호크다운>은 9·11 특수를 노리고 조기 개봉했고 의도대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것은 헐리우드의 중역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더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미국의 전쟁을 선전할 것이다. 베트남·아프리카·필리핀을 배경으로 멸사봉공하는 미군 병사들이 스크린을 누빌 것이다.

멜 깁슨 주연의 베트남 영화 <위 위 솔저스>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9·11 이후 나온 영화들 가운데 가장 역겹다. 죽어가는 병사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고 말한다. <위 위 솔저스>는 인종주의·전쟁 예찬·애국주의적 광기로 얼룩진 쓰레기 같은 영화다. 영국의 공영 방송 BBC는 “존 웨인의 <그린베레>보다 더 형편없는 베트남 전쟁 영화”라고 혹평했다. 감독인 랜달 월래스는 작년에 개봉한 최악의 쓰레기 <진주만>의 시나리오를 쓴 장본인이다. 그는 <위 위 솔저스>를 보며 “미국인들이 국가와 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 하고 말했다.

이런 영화들은 모두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작된다. <진주만>은 국방부에게 역사 자료를 구했고 진주만 기지와 항공모함을 빌려 썼다. 단 한 장면을 위해 항공모함 한 대를 빌리는 값이 무려 1백만 달러였다. <블랙호크다운>의 축하 파티에는 장군들이 직접 참석해 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헐리우드는 제국주의 무용담의 확성기 노릇을 해 왔다. 게다가 큰 돈벌이가 될 만한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레볼루션 스튜디오의 조 로스는 브루스 윌리스가 서아프리카 내전에 파병된 특수부대원을 연기하는 7천만 달러짜리 <맨 오브 워>를 제작중이다. 조 로스는 아카데미에서 <블랙호

크다운>을 로비하기도 했다. 그는 “애국심이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이 영화들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헐리우드에서 우파 영화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헐리우드가 1950년대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헐리우드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빨갱이의 위협>, <나는 FBI의 공산주의자였다>,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등 40편 이상의 반공 영화들을 제작했다.

그렇다고 1950년대 헐리우드가 우익들의 무풍지대인 것만은 아니었다. 소수의 감독과 작가들이 영웅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헐리우드 텐’은 비미국활동조사위원회의 ‘빨갱이 사냥’(매카시즘)에 협조하기 보다는 대신 감옥행을 선택했던 열 명을 가리킨다. <스팔타커스>의 시나리오 작가 달톤 트롬보도 그 중 한 명이다. 아서 밀러는 희곡 <크루서블>에서 매카시즘을 과거 마녀사냥에 빗대 폭로하고 저항을 촉구했다.

원래 헐리우드의 주류는 어느 시대에도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왔다. 1950년대에는 헐리우드 영화가 미국을 “자유와 땅, 용사의 고향”(〈진주만〉의 표현)으로 묘사하기가 여러 측면에서 한결 쉬웠다. 1950년대는 전후 30년 동안 지속된 호황의 절정이었고 냉전 시대였다.

반면 지금 미국은 경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빈부격차는 제2차대전 이후 가장 심하다. 전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운동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문화계의 전투도 시작됐다. 지난 2월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는 조지 W 부시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놀라운 책 <멍청한 백인들>(Stupid White Men)을 출판했다. 출판사의 협박 때문에 5개월이나 지나 가까스로 발간된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불과 5일 만에 9쇄를 찍었다. 한 달 만에 <뉴욕 타임스>와 <LA 타임스>,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클 무어는 이 책을 시리즈로 계속 발

간할 계획이고 전국을 돌며 사인회를 열고 있다. 사인회에는 수많은 독자들이 몰려들어 사실상 집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경찰은 무어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소년은 울지 않는다> 등에 출연한 브랜던 섹스턴 3세는 <블랙호크다운>에서 ‘알파벳’이란 별명의 레인저 병사를 연기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반전포럼에 참석해 ‘블랙호크다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www.counterpunch.org/sextone1.htm)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22살 난 배우의 연설은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고 훌륭했다. 9·11 한 달 전에 팀 로빈슨이 <네이션>에 기고한 반자본주의 운동과 녹색당 후보에 대한 지지 글보다 더 놀라울 정도다.

대체로 다큐멘터리는 극영화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칠레 전투>가 1973년 칠레혁명을 기록한 것처럼 다큐멘터리는 이제껏 놀라운 사건들을 전달해 주었다. 1999년 시애틀 시위를 다룬 <WTO를 뒤흔든 5일> 이래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의 현장과 쟁점들 역시 여러 다큐멘터리들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화들을 접하기 어렵다.

반면 헐리우드 영화들은 접하기 쉽지만 문제가 많다.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나은 헐리우드 영화는 <7월4일생>(1989년)과 <타이거랜드>(2000년)다. 걸프전을 다룬 영화의 진도는 훨씬 더디다. 그나마 봐 줄 만한 영화는 1998년에 나온 <쓰리 킹스>다. 현재 진행중인 전쟁의 경우는 더 어려운 일이다. 남미에서 미국이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의 제국주의적 본질은 <트래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어쨌든 향후 몇 년 간 헐리우드에선 문화계의 전투가 계속될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위 위 솔저스>를 보고 감동했다. 아마 이 말은 문화계 전사들의 투지를 더욱 불타우게 할 것이다.

정건

● 영화평

배틀 로얄



완전 실업자 1천만 명, 학교 거부 학생 80만 명. 가상의 시대 일본 정부는 신세기교육개혁법 ‘배틀로얄’을 제정한다. 이 법률은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택해 무인도에 가두고 1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만든다.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다들 열심히 싸워서 가치 있는 어른이 되는 거다.”

이 영화는 2000년 일본에서 개봉돼 신드롬을 낳았다. 일본 정치인들이 히스테리하게 비난을 퍼붓는 바람에 영화가 더 돋보였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정치인들에 대한 항거로 생각했다.”

이 영화를 단지 쇼킹하고 엽기적인 소재를 좇는 선정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배틀 로얄>은 경쟁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은유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생존 경쟁 등 악육강식의 경쟁이 지배하는 이 체제가 바로 <배틀 로얄>의 세계다. 그리고 전쟁은 최후의 경쟁이다. 모든 경쟁과 살인과 야만이 전쟁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배틀 로얄>이 보여 주는 학살과 야만의 비극은 모두 전쟁의 이미지가기도 하다.

입시지옥과 경제 위기는 사람들을 자살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이다. 영화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친구들을 죽이길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한다. <배틀 로얄>의 본부를 공격하려는 ‘게릴라’ 학생들과 “다들 모여서 힘을 합치자”고 호소하는 학생들처럼 반란이나 단결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본부가 투입한 ‘용병’ 학생에게 제거된다.

<배틀 로얄>은 우리가 사는 세계처럼

경쟁 그 자체도 불공정하다. 무기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소총을 쏜 학생이 있는 반면 냄비 뚜껑을 든 학생도 있다. 아빠가 부자인 아이들과 실업자의 자식들에게 세상은 출발부터가 불공정하다.

주인공 슈야의 아버지도 실업자였다. 어머니도 가출했고 아버지는 끝내 “슈야, 힘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타고난 킬러처럼 다른 급우들을 살해하는 여학생도 죽는 순간 이렇게 말한다. “난 그저 빼앗는 쪽이 돼보고 싶었어”

겹에 질린 살인과 어처구니없는 죽음 사이로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나 요한 스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흐른다. ‘레퀴엠’ (진혼곡)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면들은 아이들이 간직한 사연들을 소개한다. 이 장면들은 비극을 더 극대화하면서도 비극의 원인을 결코 아이들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완성도가 높은 영화는 아니다. 결말도 여러모로 엉성하다. 현실에서 누가 우리에게 <배틀 로얄>의 규칙을 강요하는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등 영화에 없는 해답들은 이 잡지의 다른 기사들이 제공할 것이다.

정건

● 서평

파룬궁, 중국의 충격



대니 셰허
영림카디널

1999년 4월 25일, 1만 5천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은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사무실 건물을 포위한 채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는 최근의 노동자 시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천안문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에 놀란 정부는 오히려 그 해 7월 파룬궁을 사교로 공식 지정하고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수많은 수련자들이 체포됐다. 연행된 수련자들은 파룬궁을 탈퇴하겠다고 서약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신고해

야만 풀려났다. 파룬궁을 단념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옥됐다. 수련자들은 재판도 없이 노동교양수용소로 보내지는가 하면 심지어 정신병원에 감금돼 강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감옥 안에서 수련자들은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는데 “신체적인 학대(음식을 안 주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변기 사용 금지, 찜통 더위나 혹한의 날씨 속에 세워 두기, 강제 노역,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밥 먹이기, 구타, 머리 채 잡아끌기 등)에서부터 담뱃불이나 전

기봉, 수갑 등의 도구를 사용한 고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백여 명의 파룬궁 신도들이 처형됐다.

파룬궁은 창시자 리홍즈가 1992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건강박람회에 참석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도교와 불교에 뿌리를 둔 파룬궁은 기공을 통한 신체 단련과 정신 수행의 결합을 꾀하는 영성 단체이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화하기 전에는 중국기공협회에 등록해 합법 활동을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스파이'라 부르는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는 인민해방군과 경찰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고 보안 기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어떤 관리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보건관리 비용이 절약된다"며 파룬궁을 탄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파룬궁은 탄압받게 된 걸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파룬궁 수련자 수가 이미 공산당 원 수(약 6천3백만 명)를 초과해 중국 내에서만 7천만~1억 명(중국 정부의 추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공산당 이외의 사회 조직이 이렇게 많은 수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백련교도·태평천국·의화단의 난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에서 종교 결사체들은 반란의 중심이 되곤 했다.

중국 정부는 시장 개혁 과정에서 느슨해진 정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적'이 필요했다. 시장 개혁이 낳은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 파룬궁 수련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갈등엔 항상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죠. 저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이도록 만들

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룬궁뿐 아니라 민간신앙을 포함해 각종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시장 개혁이 낳은 결과다.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무료 의료 혜택이 축소되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지만 치솟는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또한 등소평이 "먼저 부자가 되라"며 시장 개혁을 시작한 이래 만연한 물질주의와 도덕적 타락, 혼탁한 정치와 상실한 가치는 중국인들을 종교로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종교 싫건 간에 파룬궁은 물질주의에 경도된 현대 중국의 부산물이다. 자유시장 경제를 향한 물결 속에서 공산주의의 지배를 위한 이념적 토대가 붕괴되면서 정신적 공허함만 남았"기 때문이다. 파룬궁의 확산은 이렇듯 대중의 극심한 소외감에서 비롯한다. 마르크스는 종교의 기능을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 고통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고통인 동시에 현실적 고통에 대항하는 행위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민중의 한숨이며, 냉혹한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사회의 영혼이며, 민중의 아편이다...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환상을 포기하라는 말은, 환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잊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구제불능의 난독증 환자인 중국 정부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외면한 채 마르크스의 구절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잊으라'며 주먹질을 해대고 있다.

파룬궁은 극심한 탄압에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

는데 지난 3월 초 지린성의 한 국영 방송국을 점거해 자신들의 선전데이프를 50분 동안 방영하기도 했다. 파룬궁은 기본적인 시민권 자체가 억압된 나라에서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경악스런 중국의 인권 현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위선 또한 꼬집고 있다. 미국은 말로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낮췄다. 또, 미국에서 장쩌민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파룬궁 시위대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16장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에 반대하는 글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다. 비위가 약한 독자는 이 장을 건너 뛰고 읽어도 상관없다.

한은솔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정진
한길사

은 해 읽은
세 권의

경제서 — 《부유한 노예》,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그리고 이 책 — 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모두 대중적 경제서로서, 저자들이 좌파를 자처하지 않지만 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그

셋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대표이자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인 이정전 씨는 시장이 우릴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아니오”라는 답을 이끌어 낸다. 그는 먼저 시장송배자들(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소개한 뒤, 꼼꼼하고도 신랄한 반박을 가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경제 체제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극렬한 반대자인 마르크스도 이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부의 분배는 엄청나게 극단적이다. 한편에는 거대한 부가, 한편에는 깊은 빈곤의 웅덩이가 존재한다. 빈곤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절대적 빈곤으로서 이로 인한 비극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의 경우에도 절대적 빈곤층이 존재하며 이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범위를 좁히면? 그래도 “행복의 척도가 물질적 부의 양과 동일하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새로운 부는 또한 새로운 욕구를 낳았기 때문에 만족감은 더욱 얻기 힘든 것이 되었다.” “따라서 삶에 대한 인간의 전반적 만족과 행복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특히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만족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욕망의 사회성). 이런 점에서 “상대적 부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더 심한 고통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시장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체제라고. 그러나 “시장은 우유로 목욕하고

싶은 마나님의 욕망(유효 수요)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반영하지만 우유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부모의 우유에 대한 욕망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시장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그러나 “시장은 부자에게는 과도하게 자유를 주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누구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여기에는 돈이 필요하다. … 언론 매체는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고, … 보통 사람들은 악을 बारबार 쓰지 않고는 그들의 요구를 사회에 알릴 도리가 없다.”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강제”를 말하진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맺어지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노동계약은 “형식적 자유”일 뿐, 사실은 한쪽에 대한 다른 쪽의 일방적 종속 관계다.

이 책의 한 장은 “사람들이 왜 시장을 싫어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경쟁만큼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시장은 패자에게 냉혹하다. 시장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처절한 경쟁, 인정사정 봐 주지 않는 경쟁”이다. “시장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정하다는 인상과 비인간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세금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96퍼센트의 사람들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매우 위협하고 비현실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마르크스 사상이야말로 매우 인간적인

사상이며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상이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공부를 잘하는 자녀—성과 또는 효용—보다]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마르크스적이다.” 왜냐하면, 필요를 우선하므로.

그람시의 모순된 노동자 의식의 일부를 주장하는 듯하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서 마르크스와 비슷하게 말하기. 아마도 이런 것이 바로 반자본주의정서일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은 법이다.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효용’과 관련된 주류 경제학 이론만을 알고 있는 신입생들이 이 책을 본다면 마르크스 경제학이 가진 놀라운 설득력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경제학 이론을 적당히 소개하면서 비판을 전개하고 있어, 아예 100퍼센트 마르크스 경제학을 설명하는 책과는 달리 좀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책 곳곳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세계적 석학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간간히 인용하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 아마도 후쿠야마가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들—가족의 해체와 도덕성 상실, 범죄의 만연, 개인주의화, 물질만능주의—을 다룬 것에 공감하는 듯하다.

후쿠야마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탄할지언정 마르크스의 말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확고한 체제 옹호론자다. 동유럽과 구소련의 몰락을 보고 시장의 최종 승리를 선언한 후쿠야마의 책 《역사의 종말》은 이제 우익의 고전이 됐다.

또,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세상을 비판하면서, 그 예로 페미니스트들이 ‘성고한’ 여성의 임무인 가사 노동을 돈으로

계산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저자가 기존 가전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여성 해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부적절함들은 아마도 저자 자신의 대안 부재 때문이리라. 시장은 결함이 많긴 하지만, 시장 아닌 다른 대안이 가능할까?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오”이기 때문에 저자는 후쿠야마와 공자, 밀, 그리고 케인스 등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미 세계 반자본주의 운동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극렬한 반대자” 마르크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조박은정

트로츠키의 프랑스 인민전선 비판



레온 트로츠키
폴무질

“풍”이
거세다.

진보 진영의 일부도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로츠키의 《프랑스 인민전선 비판》은 부르주아 계급 일부와의 연합인 인민전선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을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시켜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고 혁명의 가능성을 분쇄했는지를 보여준다.

193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로 프랑스는 격심한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1934년 2월 6일 집권당이었던 급진당

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터지자 프랑스 극우 파시스트 세력과 왕당파 무리들이 국회 의사당에 난입해 14명이 사망하고 1천3백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급진당 소속의 달라디에가 수상직에서 사임하고 우익인 가스퐁 두메르그가 뒤를 이었다. 신임 수상 두메르그는 정부 고용 노동자 수를 10퍼센트 감축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강요하며 철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25퍼센트나 급등했다.

우익의 공세에 직면한 노동총동맹(CGT)은 2월 12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파리에서만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행동으로 응답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노동자들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던 사회당을 진짜 파시스트보다 위험한 ‘사회 파시스트’라 규정해 반파시스트 공동전선을 거부했다.

그러나 1934년 6월 공산당은 사회당에 반파시즘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10월에는 당시 프랑스에서 자유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던 급진당에게 인민전선 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공산당 노선의 180도 전환은 소련의 국제연맹 가입을 위해 제국주의 세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코민테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프랑스 인민전선을 “적이나군의 진지를 공격하면서 기동전을 준비하는 동안 진지전 전략을 구사하여 노동계급을 소부르주아 계급에 종속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이 아니라 노동자 공동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일 분파와 동맹하여 부르주아 지배 분파에 대항해야 된다는 사고, 이 사고를 노동계급 대오 내에서 분쇄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 중의 하나는 노동자 계급 전체의 동맹을 통

해 부르주아 계급 전체에 대항해야 한다는 사고를 지속적으로 결연히 주장하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을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을 타고 있다고 해서 사람과 말이 동맹한 것은 아니다.”고 쏘아 붙였다. 트로츠키는 중간계급을 노동계급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파시즘 앞에서 동요하는 급진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반파시즘 공동전선을 통해 노동계급의 단호한 힘을 보여 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급진당에 인민전선을 제안한 공산당과 사회당은 파시스트들의 위협에 대해서 대중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급진당 정권에게 반파시스트 정책을 펴도록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파시즘에 대한 투쟁을 확대했다. 노동총동맹의 조합원 수는 1936년 3월 1백만 명에서 7월에는 5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공산당원 수는 몇 년 새 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증대하는 영향력을 급진당을 지지하는 데 사용했다. 1936년 6월 사회당 당수인 레옹 블룸이 초대 인민전선 정부의 수상으로 뽑혔다. 그러나 블룸이 취임식을 열기도 전에 파리의 급속 노동자들은 공장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6월 초에는 프랑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2백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 투쟁은 1871년 파리코민파 1968년 5월 투쟁 사이에 벌어진 최대의 투쟁이었다.

블룸은 “국민은 인민전선에게 대표권을 위임했으며 우리는 이 대표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려고 했다.

결국 블룸 정부의 붕괴에 이어 급진당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 급진당은 “더 큰 이윤과 더 높은 생산성”이라는 모토로

프랑스 노동자들을 산업 노예로 격하시켜 버렸다. 공산당은 여전히 인민전선 정부를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1938년 급진당은 인민전선의 충실한 협력자였던 프랑스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노동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1938년 11월 30일 총파업이 벌어졌지만 이미 노동계급의 사기는 떨어지고 공산당의 노동계급 기반은 무너진 뒤였다.

결국 1940년 독일이 프랑스 전역을 점령하고 친나치 정권을 세웠을 때에도 프랑스 노동계급은 무기력했다. 트로츠키는 이러한 무기력의 원인을 인민전선에서 찾고 있다.

“1936년 6월 총파업이라는 거대한 투쟁이 분출하면서 노동계급이 급진화했기 격동이 오래 지속되었으나 투쟁은 혁명의 성공으로 귀결되지 못했다. 공산당, 사회당에 의한 ‘인민전선’의 반동 정치극으로 노동계급은 전망을 상실하고 극도로 사기저하했다.”

이 책은 파시즘이나 사회주의냐는 갈림길에 놓여 있던 프랑스 노동자 운동을 분석한다. 트로츠키의 프랑스 민중전선 비판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이원재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발간위원회
깊은 자유

“두 겹 아
두겹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를 뻔뻔하게 합창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주한 미군과 미국이다. 주한 미군은 중금속·폐유로 오염한 기지 땅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새 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 미군은 인권·환경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기지 예상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는 1945년 9월 미군정 때부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문제를 사건과 투쟁 과정 중심으로 상세하게 다뤘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매항리, 윤금이 씨 살인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주한 미군 범죄 대응에 주권 국가라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했다. 이 책은 미군 문제와 SOFA 재개정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싸워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피난민들을 보호한답시고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 다리로 끌고 갔다. 3일 간의 기총 사격이 있었고 죄 없는 4백여 명의 피와 눈물이 냇물을 이뤘다. 미군 지휘부는 미군에게 명령했다. “움직이는 것은 모두 죽여 버려.”

현재 남한에는 90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 미군 기지 때문에 도시는 기형적으로 됐고 ‘공여지’로 묶인 땅을 빼앗겼으며, 국민들은 미군 범죄의 희생자가 됐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와 냉전 우익들은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들먹이며 이들을 두둔한다. 북한을 핑계 삼아 기지 주변 주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미군의 훈련과 인권이 먼저라고 불멘소리를 한다.

노근리 대학살, 차라리 전쟁터인 매항리, 66세의 기지촌 여성 서정만 씨 살해 사건, 미군 기지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 사이에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근리 학살의 주범인 미국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왜곡·축소했다. 2000년 6월 매항리 오폭

사건에 대한 한미 합동 조사단은 오폭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음 때문에 짐승도 살기 힘들다는 매항리에 50년 넘게 산 주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내몰았다. 대한민국 국가가 말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단 이후 들어선 정권은 하나같이 분단 상황이라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박살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은 매항리 주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거부하며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정도로 이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결국 정부의 친미 사대주의 덕분에 미군은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사대적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한 SOFA 때문에 미군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을 남한 정부가 가질 수 없다. 그 결과 1999년 남한 정부의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전체 사건 중 3.6퍼센트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 가족이 저지른 범죄도 SOFA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실직·가장이 먹고살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들어민다.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미군 범죄, 양민 학살 진상 규명, 국민 차원의 연대라는 당위적 결론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이 주한 미군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주한 미군 철수의 당위론에 대한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쉽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들먹이며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속셈이 무엇이었는가? 한반도 분단 상태를 이용해 천문학적 금액의 F-15 구매 등 이윤을 얻기 위함이다. 이 땅에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는 남북의 대치 상태에 있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 분위기를 타거나 통일을 하면 미국 군산복합체는 남한이라는 황금 시장을 잃게 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키며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남한에 있는 미군 시설과 군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방해하며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의 지배 도구인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둔할 것이라는 미국은 “미군에 의한 피해 보상과 기지 이전 문제는 언제까지나 한국의 문제고, 미군은 손님의 입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군의 양민 학살, 미군 범죄 문제, 소파 개정 문제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우월한 지위와 면책 특권을 요구한다. 권리는 알뜰히 챙기고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미군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주한 미군으로 발생한 문제와 철수는 일부 국민의 의사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것에 무심한 국민이 많다면 미군에게 ‘숨방망이’인 SOFA 안에서 미국의 오만함은 계속될 것이다.

주한 미군과 관련한 모든 과오와 양민 학살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와 맞닿아 있다. 때문에 미군 철수 운동은 미국이 세계에서 벌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 결합해야 한다.

김정숙

흑과 재



아티크 라히미
동문선

바깥 마른
강 바닥,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난간에 기대고 있는 한 노인과 어린아이. 두 사람의 등

을 내리쬐는 가을 햇살의 각도가 이동하고 이때금씩 모래바람이 이는 것 외에 움직임이란 거의 없다. 햇빛에 바래서 혹은 먼지에 덮여서 본래의 색을 알 수 없는 터번을 꼭 눌러 쓴 노인이 하는 일이라곤 썩다 뻗은 나스와르(녹색의 마취제 혼합물) 찌꺼기를 늘리는 것뿐이다.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는 여윌고 튼 뺨을 썰룩거리며 송곳니로 사과를 깨물어 먹고 있다. 다리를 지나는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그 먼지가 그대로 노인의 터번과 어린아이의 사과에 내려 앉아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는다.

노인과 손자가 기대고 있는 다리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서 카불로 향하는 도로를 타면 반드시 건너는 곳이다. 이 다리를 지나 구불거리는 흙길을 따라가다 보면 노인의 아들이자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일하는 카르카르 탄광이 나온다. 노인과 손자는 아버지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소식은 결코 유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티크 라히미는 《흑과 재》에서 그 소식의 발생과 전달 과정을 노인의 심경을 위주로 아주 느리게 서술하고 있다. 작가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어서 소설의 배경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상황이다. 그렇지만 노인이 전달할 소식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토해내고픈 슬픔과 일치한다.

“그 날 난 방앗간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소. 갑자기 굉장한 폭음이 들리기에 놀라서 뛰어나왔지요.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불바다와 잿더미뿐이었소…난 매캐한 연기와 불꽃 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갔소…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소. 완전히 무덤으로 변해 있었지” 노인과 어린아이는 소련군이 폭격한 마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온전히 못하다. “틀림없이 탱크들이

여기에도 온 것 같아. 건넌목지기 아저씨도 목소리가 없고…소련 군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려고 온 거지? 목소리를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손자는 폭격으로 자신이 청각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상이라 노인은 대처하는 법을 모른다. 나스와르를 씹고 뱉어내고 또 씹어뱉 뿐이다. 그것 말고는 몸 밖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슬픔을 부여잡을 별다른 재간이 없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쳤는가를 곰곰히 따져 본다. 그의 좁은 견해로는, 신께서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점을 꾸짖으려 했거나 자신을 버린 것, 둘 중 하나다.

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의 아들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한데 어떻게? 노인의 아들은 쉽게 체념할 줄 모르는 사나이다. 그는 참지 못하고 원수를 파괴하거나 자신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아티크 라히미는 서로 다른 성격과 상황에 놓여 있는 삼대를 그리면서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노인에겐 경작할 밭과 거주할 땅이 있어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리 피해쳐도 사방이 암흑으로 둘러싸인 갭 속에 갇혀 있다. 노인에게서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땅이 아들 대에 와서는 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 “망할 놈”의 것에 불과하다.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된다. 어느 누구도 아프가니스탄이 왜 잿더미로 변해야만 하는지, 자신의 아내가 무슨 이유로 밭가벗고 미쳐 날뛰어야 하는지를 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아들이 복수로 점철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을 표현한 것이라면 귀머

거리가 된 손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린아이는 애초부터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다.

“때때로 고통은 녹아내려서 우리의 눈으로 흘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되어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기도 하지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폭탄으로 변해 어느 날 갑작스런 폭발로 우리를 파열시키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슬픔은 아직 어떤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의 슬픔과 분노가(아버지처럼) 칼날이나 폭탄으로 변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새싹을 돌아나게 하는 도구로 승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아티크 라히미가 종이 위에 옮겨 다 놓은 소설 속 그 곳으로 들어가 보자.

양인애

츨스키, 9-11



노암 츨스키
김영사

노 츨스

키가 없었다면 세계는 지금보다 불행해졌을 것이다. 《츨스키, 9-11》은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츨스키가 한 인터뷰를 모아 놓은 것이다. 츨스키는 강대국(특히, 미국)의 정치가 세계를 어떻게 냉소적으로 만들었는지, ‘테러’ 집단들이 자기 후원자들에게 어떻게 대드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9·11 테러의 공포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일상적으로 저지른 잔인한 행위를 폭로한다. 또, 부시의 군사

행동이 셀 수 없으리만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한다.

수단의 알시파 제약 공장이 그런 예 가운데 하나다. 이 공장은 1998년에 ‘테러’ 기지라는 이유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에 의해 파괴당했다. 폭격으로 얼마나 죽었을까? 츨스키는 이것이 잘못된 물음이라고 말한다.

수단은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이 나라는 150만 명이 죽은 내전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었다. 수단은 빈 라덴의 추종자로 의심되는 인물들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크루즈 미사일이었다.

미국의 폭격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가축용 의약품뿐 아니라 말라리아·결핵 등의 질병 치료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구호 단체들은 철수했고 종족 전쟁이 재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뉴욕 테러의 희생자 수와 비슷하다.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늘날에도 다름 바 없다. 지난 겨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서방 지도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병행하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이주 이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전쟁의 “부수적 피해”라고 말할 것이다.

카불이 함락됐을 때, 전쟁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잠시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반전 운동가들에게 반전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실은 그 반대였다. 케인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현실이 변하면 나는 생각을 바꾼다. 당신은 어떤가?” 츨스키의 독자들은 찬전 자유주의자들이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가질 때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 정책의 핵심에는 츨스키가 “테러

리즘 문화”라고 부른 것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약소국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행위를 대대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용인했다. 미국은 ‘테러’에 연루돼 있다 - ‘인도주의적 개입’, ‘저강도 전쟁’, ‘고압적 외교’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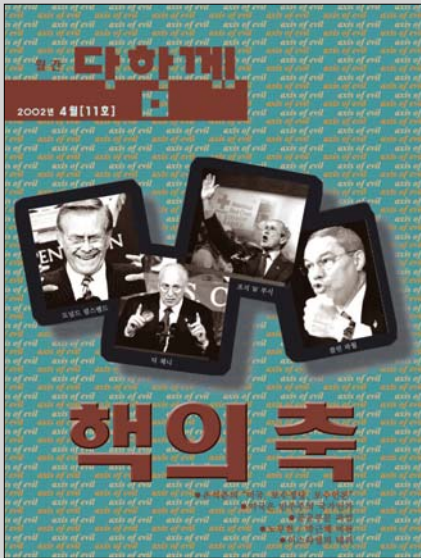
이것을 실행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은 둘다 특별한 종류의 심리와 문화를 갖고 있다. 츨스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서방의 지적·도덕적 문화 위에서 수백 년 동안 자행된 제국주의 폭력의 심대한 충격”에 의해 지탱된다. 그래서 논평가들은 “세계에 대한 범죄를 우리가 들어켜 마시는 공기처럼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끔찍한 사실들은 기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존 네그로폰테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가 미국이 수천 명의 온두라스 인들을 학살할 때 팔짱 끼고 있었던 온두라스 주재 미국 외교관 맞어?

미국의 정책을 불법적이고 고압적인 대응이라고 비난한 국제 법정은 없었는가? 위선적이게도, 미국은 국제 법정에서 국제 테러리즘을 비난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고, 국제 법정을 모욕하고, 심지어 모든 나라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거부한다.

츨스키의 책은 두껍지 않다. 이 책을 사서 읽고 메모해 둘 만하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해외에서 끊임없이 학살을 저지르는 무자비하고 잔혹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츨스키가 말했듯이, “이 사실들은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목청 높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

김인식



11호(2002.4)

- 손석훈의 "미국, 보수정당, 보수언론"
- 누가 핵 미처광미인가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 인터뷰 : 시민방송영화제 대상 <데미지 컷> 제작자
- 죽음의 댄스마약 엑스터시?
- 민간 의료보험 제도
-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 철도 파업 평가
- 사유화에 맞선 발전 파업
- 발전 파업 탈락 취재
- 노무현의 모순된 행보
- 박근혜의 "개혁" 흉내내기
- 공무원 노조 출범
- 이스라엘의 테러
- 인도 '종교 분쟁'
- 미탈리아 노동자 투쟁
- 모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라



10호(2002. 3)

- 미친듯이질주는전 경관들
- 미야키 미국의다음 표적
- 1991년 제2차 걸프 전쟁
- 미국 제국주의의모순
- 김대중, 부패 위기
- 민주당 대선후보 폭로
- 교사노동자가 민주노동당 지지 이유를 말한다
- 한미투자협정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공격
- 교육 평준화 하제 논란
-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동자들
- 파에르 부르디외조사
- 동물 권리옹호론에 대한지론
- 과학과 이데올로기
- 세계화와 여성 노동자
-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화포럼
- 언론 스캔들
- 아르헨티나 노동자 저항
- 빅토르 위고 탄생 200주년



9호(2002. 2)

- 지금의 아르헨티나 상황
- 페론주의를 넘어
- 각국의 리턴 아메리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의교훈
- 월드컵과 정치
- 양심적 병역거부
- 김대중과 검찰부패
- 노무현은 민주개혁인가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2002년 선거전망
- 철도 사유화 반대투쟁
- 주5일 근무제
- 장성민 교수의 세계경제위기 전망



8호(2002. 1)

- 이스라엘이벌어는 '테러와의전쟁'
- 끝없는 전쟁?
-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해방됐는가?
- 민주주의에 대한공격
- 보신당 논란
- 인간배아복제
- 백색 공포?
-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 김대중, 선거 전보진영의 도전
- 강릉민들의 비민주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
- 철도 노동자 투쟁
- 한자위 재외동포법 위험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 브루셀 EU정상회담 반대시위
- 중국은 어디로?
- 크리스마스인의해방



7호(2001. 12)

- 미국의아프가니스탄 전쟁정세 분석
-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한다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인/에드워드 사이드
- 미국 정부의생화학 테러
- 필레스타인인들의 민중봉기
- 오늘의제국주의와 전쟁
- 전쟁과 근본적 사회변혁
- 집권당의 위기 대안은 무엇인가
- 파산한김대중
- 노무현의 전도사노무현
- 수전 조지의 WTO 비판
- 왜공 입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 철도 노동자들의 사회법화반대투쟁
- 미약합법화를 옹호하는주장
- 의사들의인력사·노태도·대포 자침
- 시정을폐지하라
- 김대중의사주주의 교육정책 비판



6호(2001. 11)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홍근슈미트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 유엔
- 아슬람에 대한사병의 편견
- 유대시모-즘의본질



5호(2001. 10)

- 전쟁은 더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위
- 사위전전쟁
- 청소년 대상성 범죄자 신상 공개
- 김수환 교수강연



4호(2001. 9)

- 제노바 G8회담 반대시위
-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 소련 붕괴10주년
- 매일의 불안한 앞날



3호(2001. 8)

- 김대중 언론개혁의모순
- 민주노총 상반된 파업평가
-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 '8·15민중광동행사'를 비판한다
- 매해준합법화



2호(2001. 7)

- 서울대개혁 논란
- 인력사 합법화 논쟁
- 6·15선언 1년을돌아보며
- 시간금 개혁사업이 가져올 결과들
- 민족과계급



1호(2001. 5)

- 미친 스타워즈 계획을 중단하라
- 부시 지지자를 망치고 있다
- 미스코리아-죽전-여성차별 축전
- 강철은왜그리도 폭력적일까?
-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역사교과서외국

Tous ensemble

다함께

나홀로 가 마치 미덕인 양 예찬하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마저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오늘 절실하게 아름다운 파닭입니다.

손석준(〈한겨레〉논설위원) ●

〈다함께〉 하면 저는 1995년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진보적 노동자들과 지식인들 모두가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함께(Tous Ensemble) 싸웠던 투쟁이 생각납니다. 것처럼 우리도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함께 의기 아래 수구 보수 세력을 이 땅에서 끝장냅니다.

홍세화(〈한겨레〉기획위원) ●

〈다함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인쇄 매체는 많이 읽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월간지가 되도록 잡지가 쉬웠으면 합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

사랑하는 내 아기의 첫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창간 1주년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합니다. 무릇 잡지가 1년을 살아남았다는 것도 장한 일이지만 다른 잡지나 소식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세계의 긴요한 문제들을 들춰 내어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계속 대안적인 잡지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

신자유주의와 좌파 개량주의, 스탈린주의가 득세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의 정치와 노동자 운동의 결합을 위해 창간된 〈다함께〉의 지난 1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함께〉가 고전 맑스주의 전통의 대중 매체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다함께〉가 벌써 창간 1주년을 맞이하였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동지들이 많다는 데에 정말 뿌듯함을 느끼며,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1년을 향해 힘차게 다함께 나아갑시다.

최승호(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회 준비위원) ●

〈다함께〉를 구독하며 이 시대를 살아 가는 노동자들의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된 듯합니다.

또, 실천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동지들의 모습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김수한(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조직부장) ●

〈다함께〉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반자본주의에 대한 열린 주장으로 노동자 계급의 의식적인 연대를 만들어 내는 소중한 글들이 담겨 있어 다달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시리즈로 실었으면 합니다.

이현성(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정책 부지부장) ●

이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꼬집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하는 〈다함께〉를 보면서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심도 깊은 국제 기사는 은폐되고 감춰져 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지원(경희대학교 국문과 O2학번) ●

막연한 불만과 의구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를 통해 주장을 접하고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함께〉를 접하고 다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함께〉가 더 다양한 독자들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조준연(다함께 고대 모임) ●